

보험동향 2019년 여름호

Ⅰ 총괄	조영현 (연구위원)
Ⅱ 경영환경	최예린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Ⅲ 보험동향	최 원 (수석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권오경 (연구원)
Ⅳ 해외보험 동향	김세중 (연구위원) 권오경 (연구원) 최예린 (연구원) 이규성 (연구원)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경영환경

1. 경제 / 2
2. 금융 / 9
3. 규제·제도 / 15

II. 보험 동향

1. 성장성 / 18
2. 수익성 / 41
3. 리스크 / 49

III. 해외보험 동향

1. 2018년 세계 보험산업 규모 및 전망 / 63
2. 미국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동향 / 68
3.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실적 / 72
4.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최근 동향 / 77

I . 경영환경

- 세계 경기 둔화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한·일 갈등 등으로 인해 실물경제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관들은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3.2%로 제시함
-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소비, 투자 및 수출 모두 위축되고 있으며, 순환변동치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 둔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1/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1.3%p 하락한 1.8%를 보였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치임
 - 국내 주요 기관은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4%가 될 것으로 전망함
- 낮은 물가상승률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7월 18일 기준금리가 1.75%에서 1.50%로 인하되었으며, 연내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 국내 경제지표가 매우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기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
- 기준금리의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며 역사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채 3년물 금리는 2016년 7월 이후 최저수준인 1.2%대로 하락하였고 장기물의 금리 하락폭이 단기물보다 커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됨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확대, 한·일 갈등 심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기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며 상승세를 나타냄
 -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기 둔화 우려 확대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상승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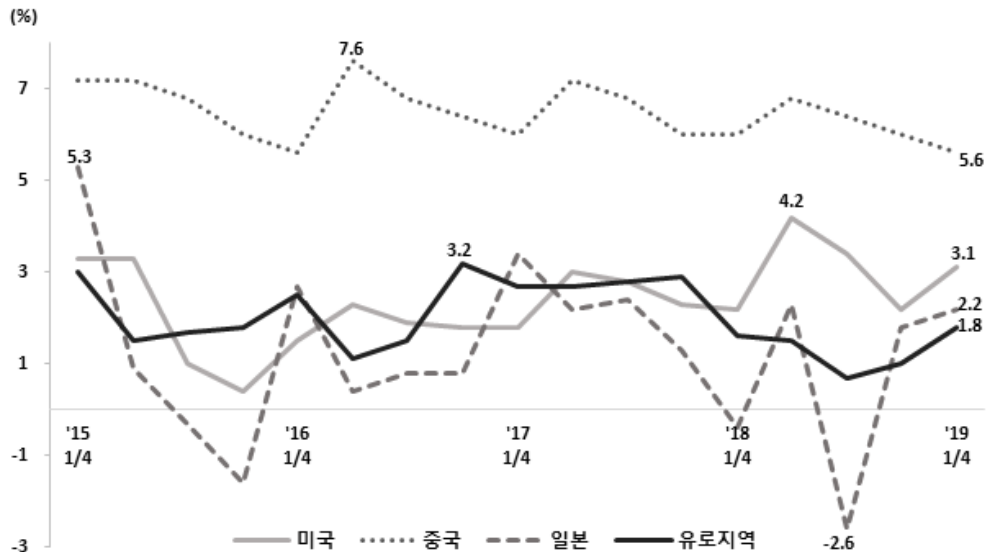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세계 주요국 성장률은 중국을 제외하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임

- 2019년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5.6%를 기록하였고,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0.9%p, 0.4%p, 0.8%p 상승한 3.1%, 2.2%, 1.8%를 기록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9. 6); 중국 국가통계국(2019. 4); 일본 내각부(2019. 6); Eurostat(20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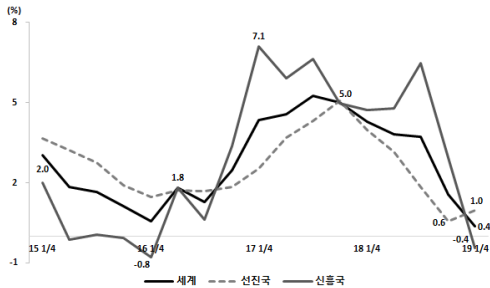
■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과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7년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4분기에는 선진국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유지함

- 2019년 1/4분기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1.0%를 기록하였고,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¹⁾ 3.3%p 하락한 -0.4%를 기록함

1) IMF(2019. 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2019년 1/4분기 선진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0.8%를 기록하였으나,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²⁾ 1.0%p 하락한 2.3%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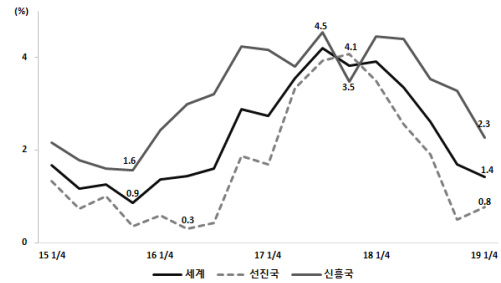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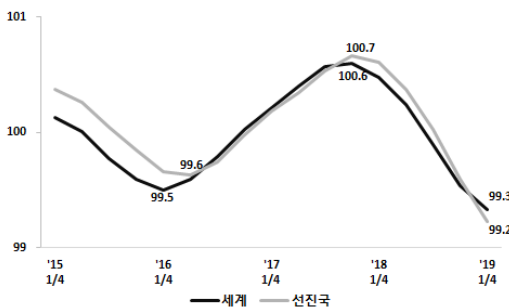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 세계 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3/4분기 최근 4년내 최고치인 100.6을 기록한 이래 5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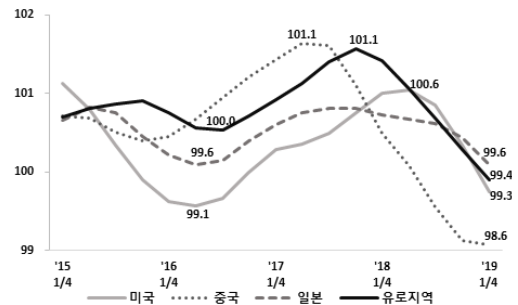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선진국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4 하락한 99.2를 기록하였고,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은 각각 0.5, 0.3, 0.4 하락한 99.3, 99.6, 99.4를 기록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주: 2007년 1월=100,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OECD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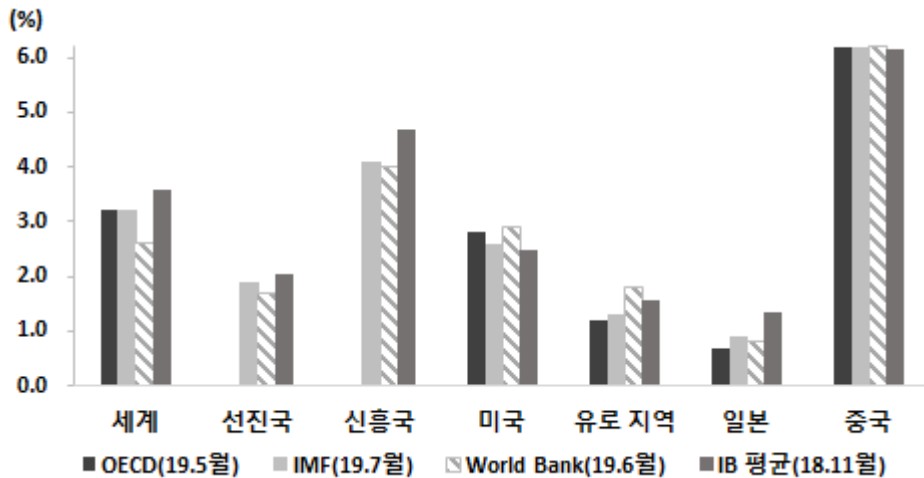
2) IMF(2019. 4), *World Economic Outlook*

■ 주요 기관들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주요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OECD는 최근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0.3%p 하향 조정하여 3.2%로 발표함³⁾

○ IMF와 World Bank는 기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p, 0.3%p 하향 조정하여 3.2%, 2.6%로 제시함⁴⁾

〈그림 6〉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OECD, World Bank, 4개 IB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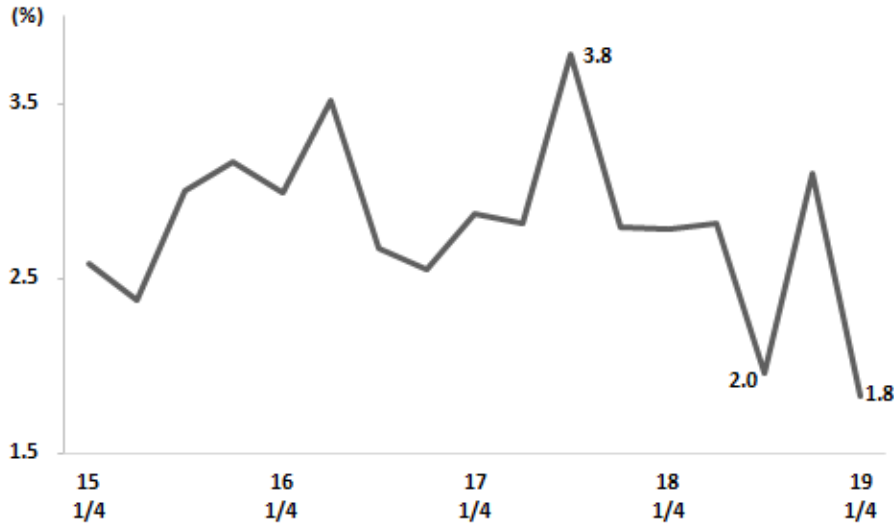
나. 국내경제

■ 2019년 1/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 분기보다 1.3%p 하락한 1.8%를 보였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치임

3) OECD(2019. 5), *OECD Economic Outlook*

4) IMF(2019. 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World Bank(2019. 6), *Global Economic 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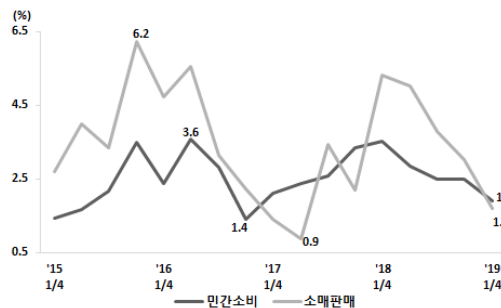
〈그림 7〉 국내 경제성장률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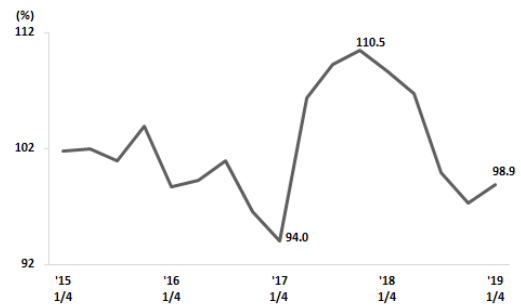
-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8년 1/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2019년 1/4분기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함
- 2019년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1.9%, 1.7%를 기록함
- 2019년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저물가, 저금리 등으로 생활형편전망이 개선되면서5) 전분기보다 1.6 상승한 98.9를 기록하며 반등함

〈그림 8〉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9〉 소비자심리지수



5) 국회예산정책처(2019. 4), 『NABO 경제동향&이슈』

설비투자 증가율 및 건설투자 증가율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기계수주 증가율 및 건설수주 증가율도 동반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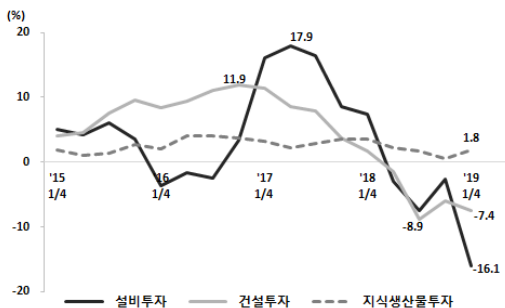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p 상승한 1.8%를 기록하였고, 건설투자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1.5%p, 13.4%p 하락하여 -7.4%, -16.1%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2월 중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의 하락과 선박 등 운송장비 부문의 투자 하락 영향으로⁶⁾ 큰 폭으로 하락함

○ 2019년 1/4분기 기계수주 및 건설수주는 각각 전분기보다 3.0%p, 6.3%p 하락하여 -2.8%, -4.2%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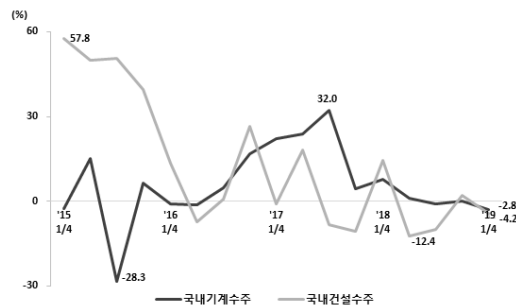
- 건설수주 증가율은 2월 중 공장·창고, 주택 등 건축부문과 도로·교량 등 토목부문 감소의 영향으로⁷⁾ 하락함

〈그림 10〉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1〉 기계수주,¹⁾ 건설수주²⁾ 증가율



주: 1) 선박 제외함
2) 경상
자료: 통계청

수출입 증가율은 2019년 1/4분기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⁸⁾는 2016년 3/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6.2%p, 수입 증가율은 19.6%p 하락하여 각각 -8.5%, -6.7%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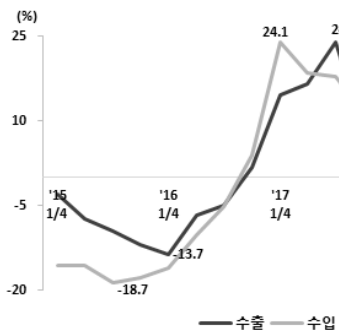
6)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7)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8)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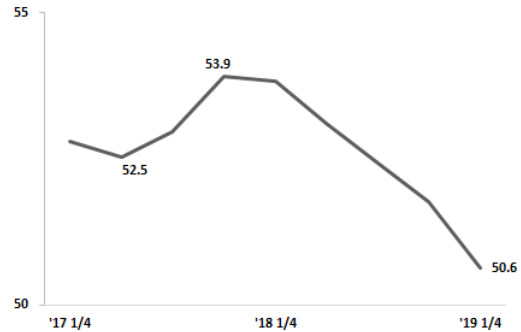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전분기보다 1.2 하락한 50.6을 기록하며 하락세가 확대됨

〈그림 12〉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임
자료: 관세청

〈그림 13〉 글로벌 제조업 PMI



주: 전분기 대비, 3개월 이동평균임
자료: Bloomberg

■ 투자와 수출의 위축과 더불어 순환변동치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 둔화 기초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1/4분기 경기 선행지수⁹⁾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의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98.1을 기록함

- 2019년 5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지수 및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감소하여¹⁰⁾ 전월대비 0.2 하락함

○ 2019년 1/4분기 경기 동행지수¹¹⁾ 순환변동치는 구인구직비율 등이 하락하여 전분기보다 0.3 하락한 98.4를 기록함

- 단, 2019년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이 증가하여¹²⁾ 전월대비 0.2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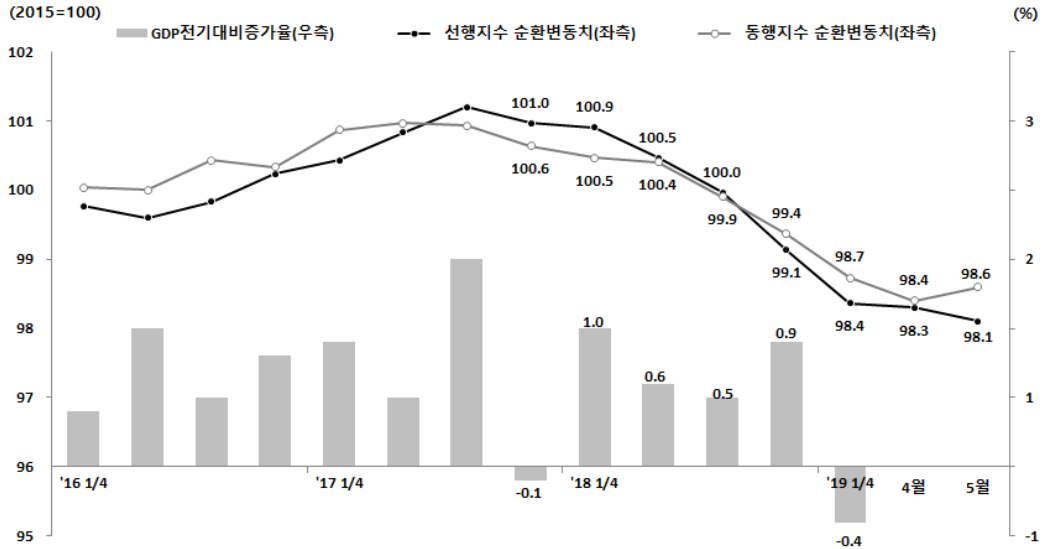
9)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10) 통계청 보도자료(2019. 6),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

11)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12) 통계청 보도자료(2019. 6),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4〉 GDP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19년 1/4분기,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국내 주요 기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8년 경제성장률에 비해 0.3~0.5%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최근 2019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2%, 2.4%로 전망함

○ 두 기관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나,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향후 미·중 무역분쟁 및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반도체 수요 회복이 부진할 경우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임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F) ¹⁾		2020(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3.1	2.7	2.2	2.4	2.5	2.5
민간소비	2.6	2.8	2.3	2.2	2.4	2.4
설비투자	14.6	-1.6	-5.5	-4.8	3.4	3.5
건설투자	7.6	-4.0	-3.3	-4.3	-1.6	-3.1
지식생산물투자	3.0	1.9	2.6	2.6	2.9	2.8
상품수출	3.8	4.0	0.6	1.1	2.4	4.2
상품수입	7.4	1.9	-0.5	-1.6	2.4	3.0
실업률	3.7	3.8	3.9	3.9	3.8	3.8
소비자물가	1.9	1.5	0.7	0.7	1.3	1.3
경상수지	752	764	590	582	585	559
상품수지	1,136	1,119	875	859	895	802
서비스·본원 이전소득수지	-384	-355	-285	-277	-310	-243

주: 1) 2019(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19. 7),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19. 5),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 금융

〈금리〉

■ 낮은 물가상승률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7월 18일 기준금리가 1.75%에서 1.50%로 인하 되었으며, 연내 추가 인하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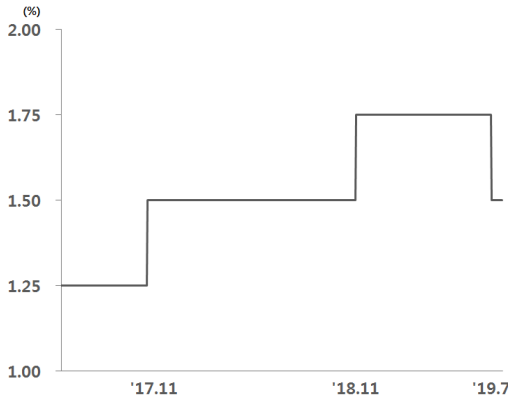
○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에 의한 금리인하¹³⁾ 기조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조정하고, 성장세 둔화 및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여 3년 1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함

13) 금년 중 주요국의 기준금리 조정 폭: 미국·한국·홍콩·뉴질랜드 -0.25%p, 브라질·호주 -0.5%p, 인도 0.7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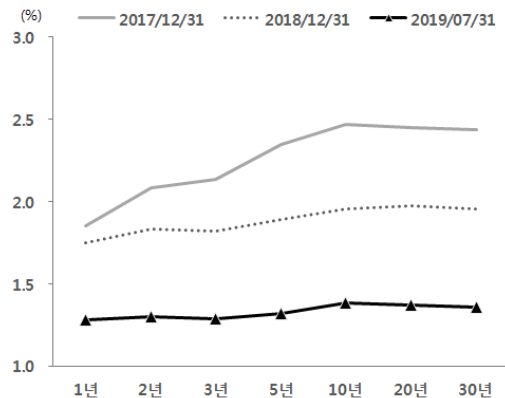
- 국내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기하방 리스크가 높아져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전년동월 대비)에 불과함

〈그림 15〉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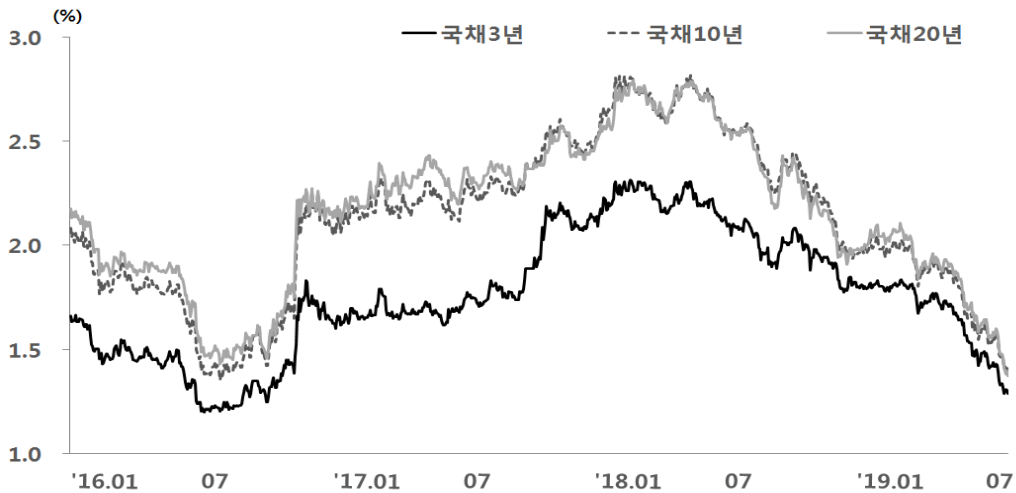
〈그림 16〉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며 역사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채 3년물 금리는 2016년 7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장기물의 금리 하락폭이 단기물보다 커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됨
- 10년 이상 중장기물도 1.2%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 20년 물이 10년물보다 낮아지는 장기·초장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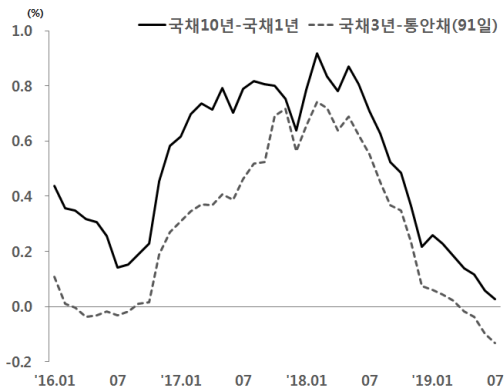
〈그림 17〉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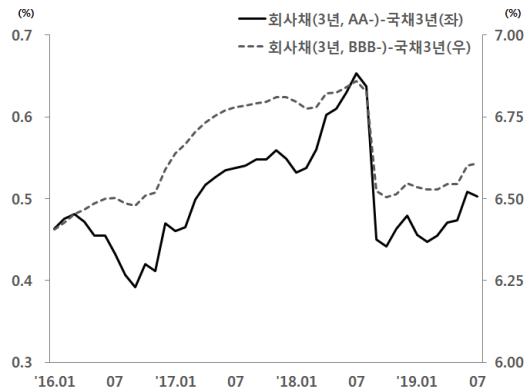
-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관계 악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인해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됨
- 국채 3년물과 통안채 91년물 간 스프레드는 2019년 4월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10년-1년)도 축소됨
- 신용스프레드는 완만하게 확대되는 모습임

〈그림 18〉 장단기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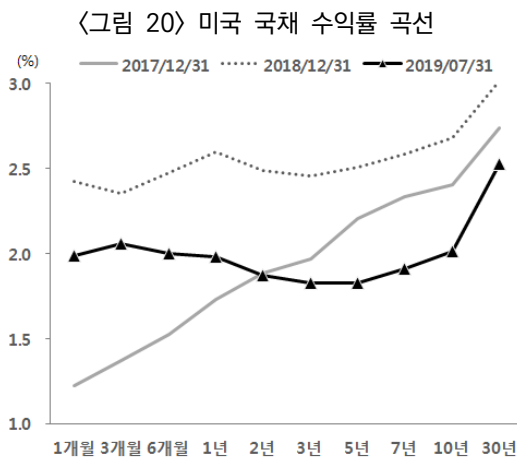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미국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미·중 무역분쟁 확대 및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금리차는 축소되다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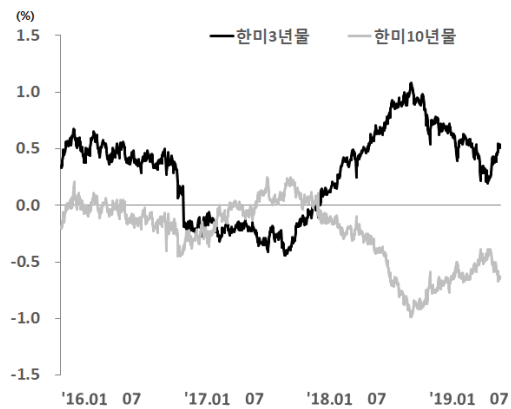
○ 미 연준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10년 7개월 만에 인하함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중 무역갈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의 영향으로 7월 1.9%대로 하락함



자료: Bloomberg

〈그림 21〉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차(3년, 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하반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하향 조정함

○ 2019년 하반기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2.13%, 우리나라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66%, 1.63%로, 상반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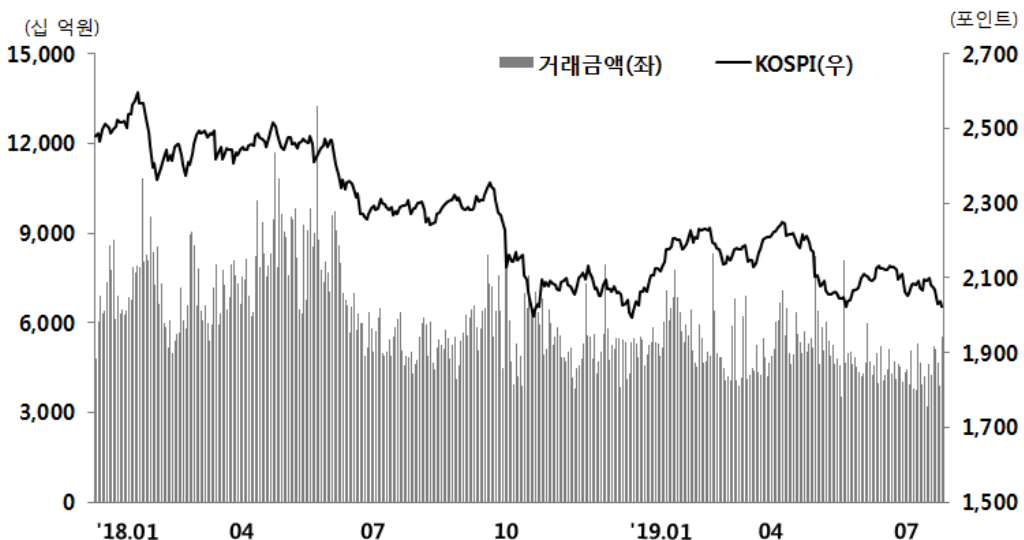
미국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3년)금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49	2.13	1.88	1.66	1.72	1.63

주: 2019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7월 중순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주가〉

- 2/4분기 코스피(KOSPI)는 2,016~2,252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일본 수출규제 우려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임
-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주가가 하락함

〈그림 22〉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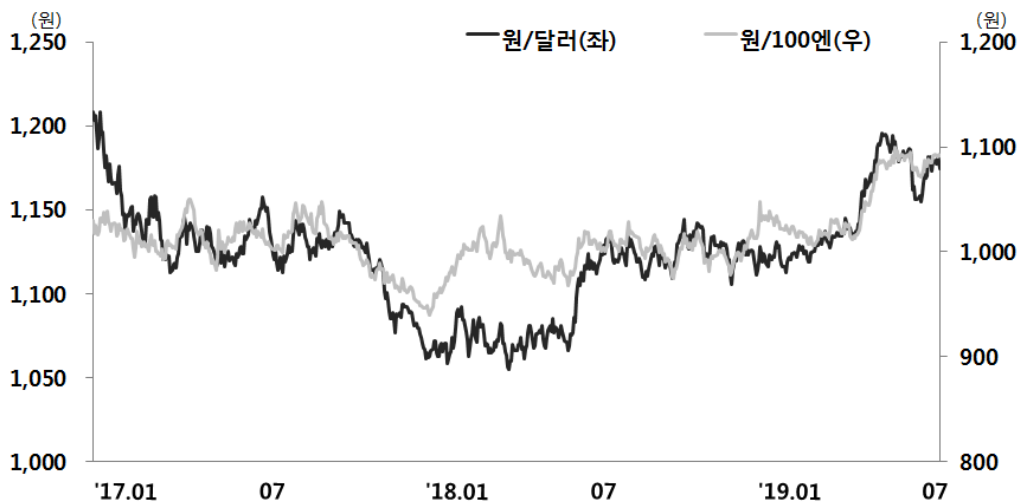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확대, 한·일 갈등 심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며 상승하고 있음
- 5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의 견조한 성장세와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로 연고점에 도달하였으나 6월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등으로 소폭 하락함
- 7월에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 합의, 남·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둔화 우려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의 영향으로 평균 1,177원을 기록함
 -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부진 우려가 확대됨

■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¹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기 둔화 우려 확대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상승세를 지속함

○ 7월 원/엔 환율은 평균 1,088원을 기록하며 상승세임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유로존의 정치 리스크, 미·이란 갈등 등 글로벌 정치·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23〉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19년 하반기에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함

14) 일본은행은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은 0.9%, 물가상승률은 1.4%에서 1.3%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경기 및 물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낮은 금리 수준을 2020년 봄까지 유지할 것으로 발표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Standard Chartered	1,145.84	1,175.0	110.03	109.0	1.13	1.14
JP Morgan		1,177.5		107.5		1.16
Barclays		1,205.0		103.5		1.13
Citi group		1,121.5		106.0		1.18
Morgan Stanley		1,155.0		108.5		1.15

주: 2019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7월 중순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3. 규제·제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2019. 6. 28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개선, 신 지급여력제도(K-ICS) 수정안,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함

■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 강화(2019. 6. 26 금융감독원)

-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2018. 12. 6)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 12일 손해사정 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기준을 보험협회에서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함
-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

■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019. 6. 18 금융위원회)

- GA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1천만 원 이하)을 마련하고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

■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2019. 6. 10 예금보험공사)

- 6월 10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및 대학 교수,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가 개최됨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신뢰성 제고(2019. 5. 27 금융위원회)

- 피해자가 예측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을 확대 적용하고,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및 교통환경 변화 등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 및 변경함

■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2019. 4. 29 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및 휴업손해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함
-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며 차량별 보상액을 5% 증액함
- 범퍼 이외에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발생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함

■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신(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2019. 4. 29 금융감독원)

- 2017년 4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중 과거 2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기본계약 및 3개 선택특약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함
 - 보험회사가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갱신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함

■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2019. 8. 1 금융위원회)

- 보험상품별 해약 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함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함
-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

II. 보험 동향

- 보험산업의 자산성장률은 2018년 둔화 추세였으나, 2019년 1/4분기에는 상승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함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산증가율 확대가 두드러지며,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자산증가율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 증가 이외에 생명보험 자산 성장에 기여한 주요인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증가임
 - 손해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에는 책임준비금 증감이 57.3%, 기타부채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각각 27.0%와 26.9% 기여함
- 생명보험산업의 순수신(수입보험료-보험금-사업비)은 감소세이며, 2019년 1/4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25.6조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의 만기 보험금이 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는 줄고 있는 점이 순수신 마이너스 전환의 주된 요인으로 보임
- 손해보험산업의 순수신(원수보험료-발생손해액-사업비)은 2018년 3/4분기 이후 회복세이나,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2019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1.9조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 6.0% 증가함
- 2019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반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손해율과 사업비율 상승으로 18.8% 감소함
 - 한편, 생명보험산업은 신규 판매 확대 부진 및 수입보험료 감소 등으로 해지율, 사업비율, 지급률이 상승하고 있음
 - 2018년말 103.0%였던 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은 105.8%까지 상승함

1. 성장성

〈보험회사의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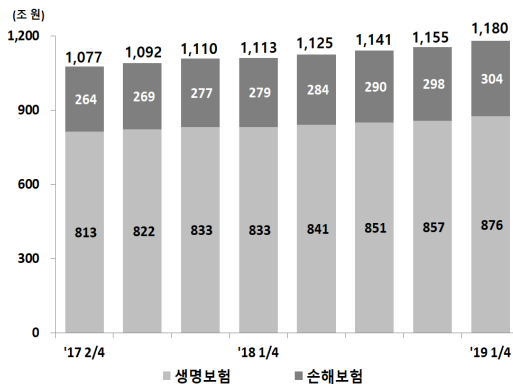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함
 - 보험산업은 통상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측정함
 -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투자영업)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보험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지표는 자산성장률로 판단됨
-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

가. 자산

■ 보험산업 총자산은 2019년 1/4분기에 1,141조 원으로 은행과 증권 산업 대비 각각 35%, 242%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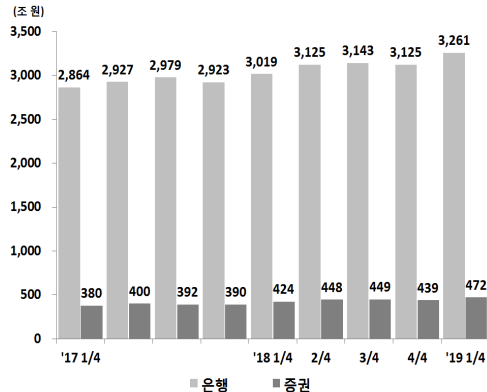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876조 원이며, 손해보험 총자산은 304조 원을 나타냄
- 은행과 증권 산업의 총자산은 각각 3,261조 원과 472조 원을 기록함

〈그림 1〉 보험산업 자산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 은행 및 증권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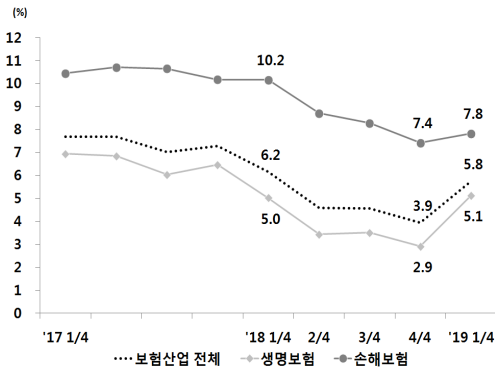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 2018년 말까지 보험산업의 성장성은 둔화 추세이나, 2019년 1/4분기에는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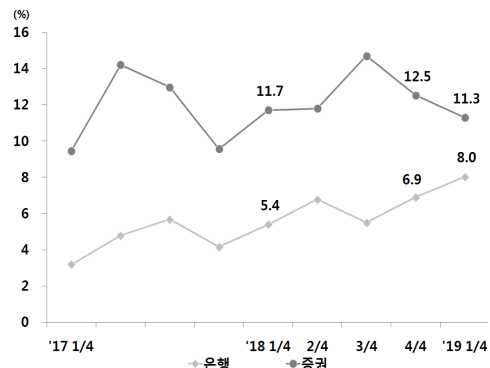
-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함
- 신계약의 성장 둔화로 인하여 책임준비금 증가율은 높지 않았지만,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
- 한편, 은행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0%로 증가하였으며, 증권산업 성장률은 11.3%로 하락세를 나타냄

〈그림 3〉 보험산업 자산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 은행 및 증권 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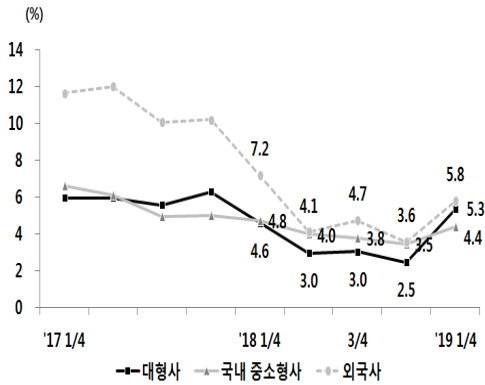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산증가율 확대가 두드러지며,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자산증가율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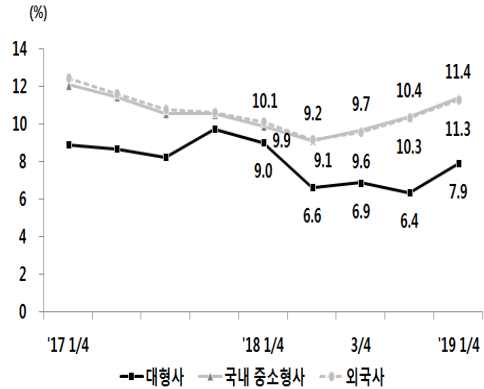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생명보험 대형사의 자산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2.8%p 증가한 5.3%이며, 손해보험 대형사의 자산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1.5%p 증가한 7.9%임

1) 생명보험산업은 총 24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중소형사 12개와 외국사 9개를 포함함
2) 손해보험산업은 총 30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중소형사 9개와 외국사 17개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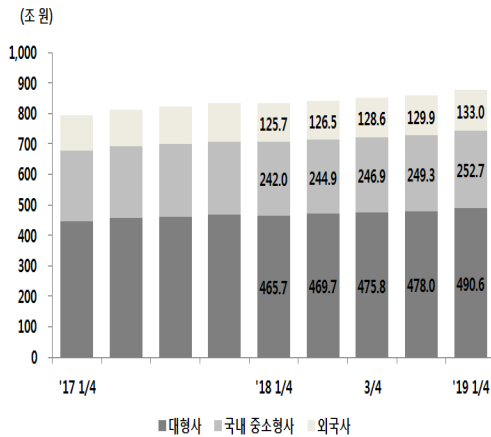
〈그림 5〉 생명보험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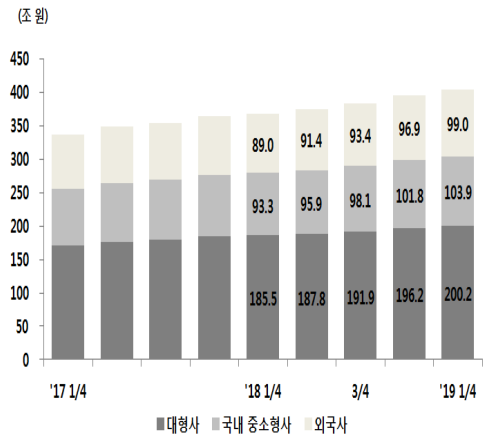
〈그림 6〉 손해보험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그림 7〉 생명보험 유형별 총자산



〈그림 8〉 손해보험 유형별 총자산



주: 1)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 국내 중소형사는 12개사, 외국사는 9개사임

2)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 국내 중소형사는 9개사, 외국사는 17개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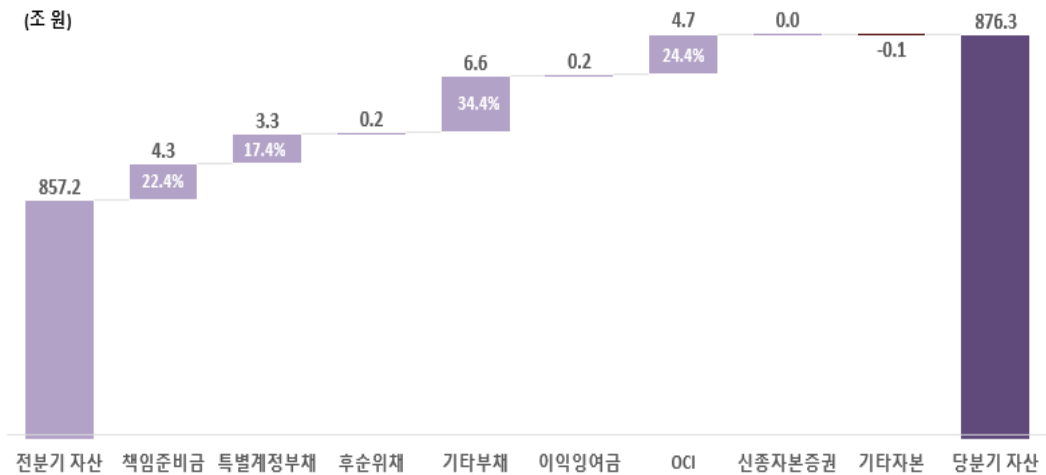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생명보험 성장 요인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 증가 이외에 생명보험 자산 성장에 기여한 주요인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증가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4조 6,633억 원 증가하여 자산 성장에 24.4% 기여함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는 각각 4조 2,711억 원, 3조 3,286억 원 증가함
- 기타부채는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크게 증가함

〈그림 9〉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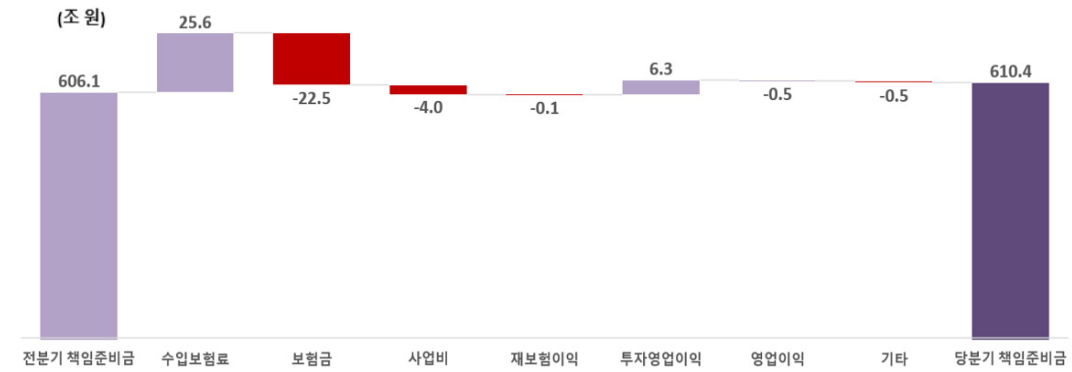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와 부리이자(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책임준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보험금(발생손해액), 사업비 및 '수입보험료 속에 포함된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은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임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부리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적립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음
 -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부리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 이므로
 -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 책임준비금전입액 + 기타
 -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공시된 회계상의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대략 '부리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책임준비금은 4조 2,711억 원 증가하였는데, 보험금과 사업비 지출이 수입보험료를 초과하여 책임준비금 증가를 억제시킨 것이 특징임

- 투자영업이익은 6조 2,566억 원으로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증가의 주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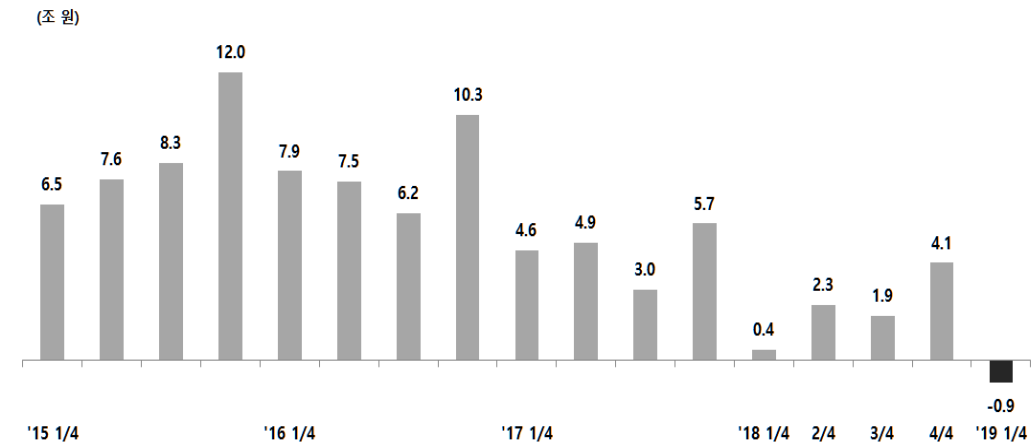
〈그림 10〉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순수신(수입보험료-보험금-사업비)은 감소세이며, 당분기 - 9,372억 원을 기록함

〈그림 11〉 생명보험 순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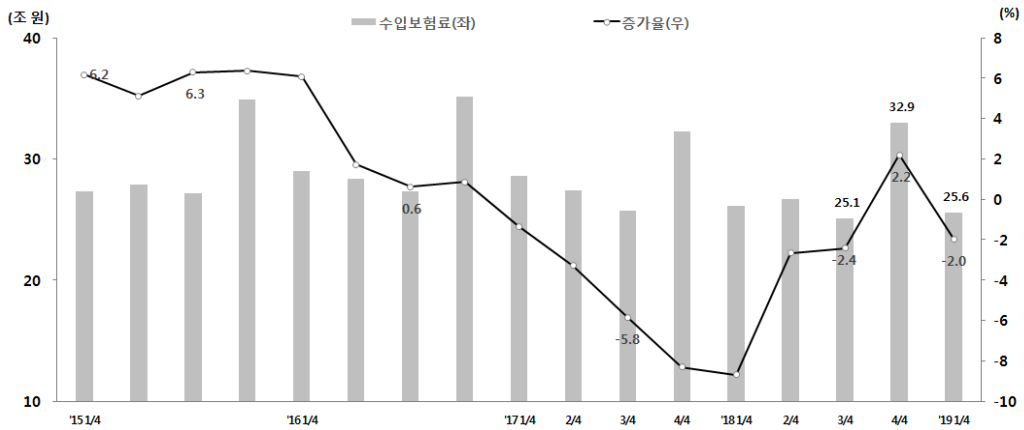
주: 순수신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 4/4분기 퇴직연금 확대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1/4분기 다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25.6조 원을 기록함
- 단, 2017년 급격하게 감소했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2019년 1/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그림 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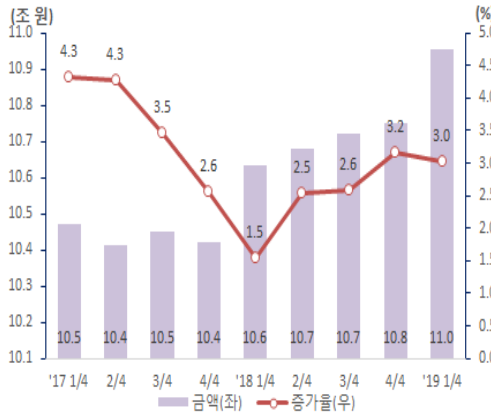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역성장은 저축성보험 감소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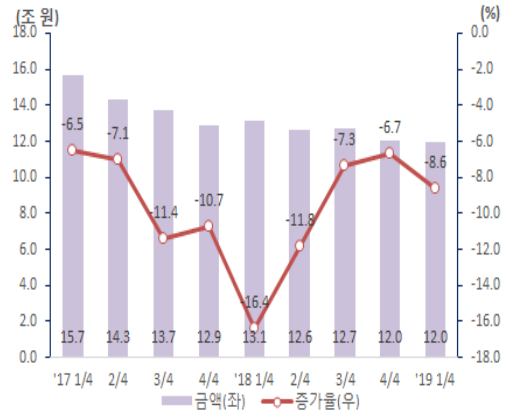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은 치매보험,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등 새로운 상품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1.0조 원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은 판매실적 둔화 확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12.0조 원을 나타냄
 - 특히,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불안 가속화로 감속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3%, 2.6% 증가한 2.4조 원, 0.2조 원을 기록함

〈그림 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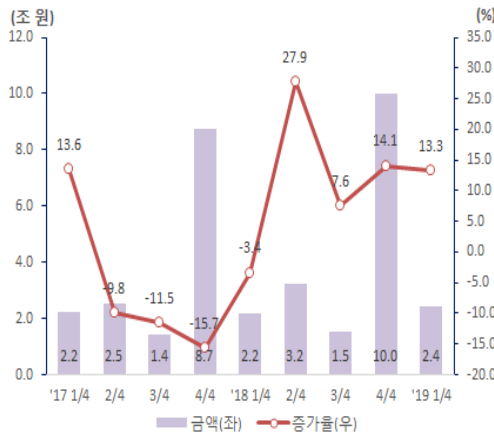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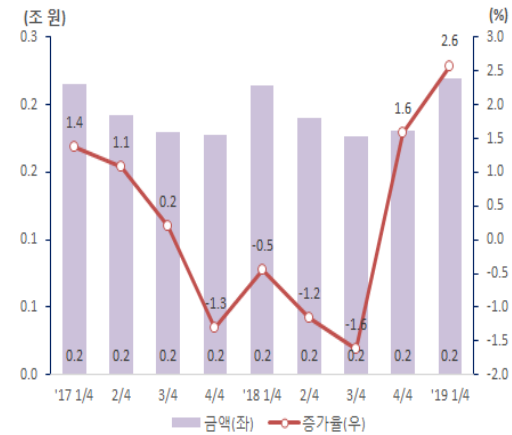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5〉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6〉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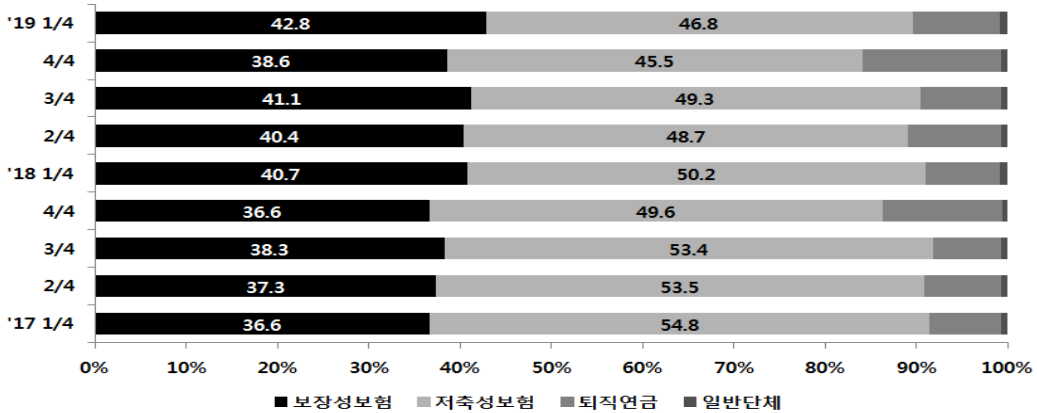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저축성보험 감소세가 계속됨에 따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임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2017년 1/4분기 54.8%에서 2019년 1/4분기 46.8%로 축소됨

○ 반면,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36.6%에서 42.8%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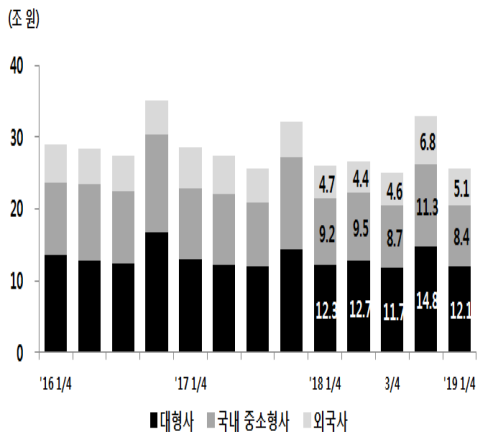
〈그림 1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주: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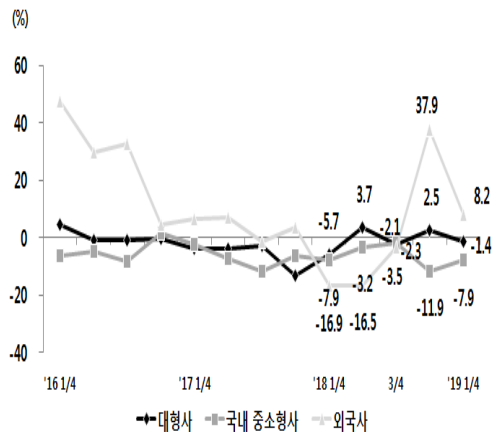
- 회사 유형별로 보면, 국내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감소폭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크게 나타남
-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내 중소형사가 최근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위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임

〈그림 1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9〉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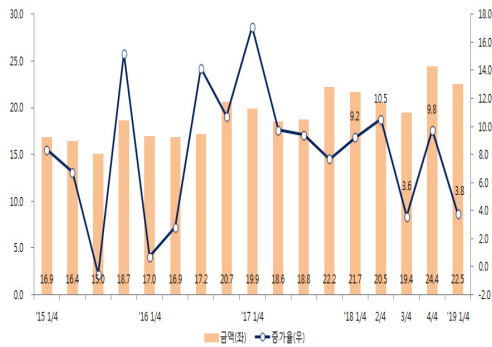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

■ 보험금의 경우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8년 4/4 분기에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9년 1/4분기 전년 동기 수준으로 감소함

○ 보험금은 2018년 전년 대비 8.2% 증가한 데 이어, 2019년 1/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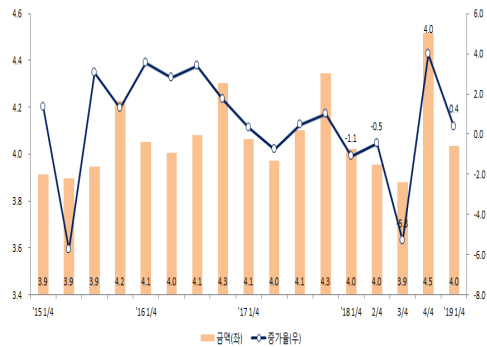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침

〈그림 20〉 보험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1〉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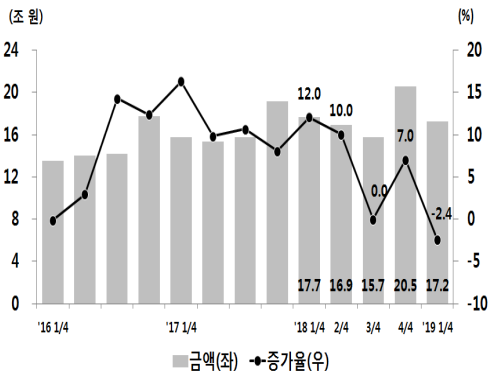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명보험 보험금은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이 증가세이며, 환급금과 사망 및 상해 보험금은 감소세임

○ 저축성보험은 만기 보험금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는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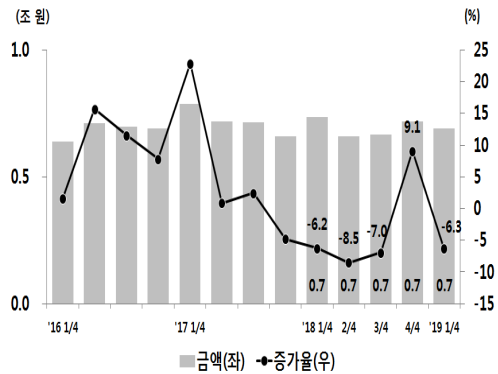
- 이는 순수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주요인으로 판단됨

〈그림 22〉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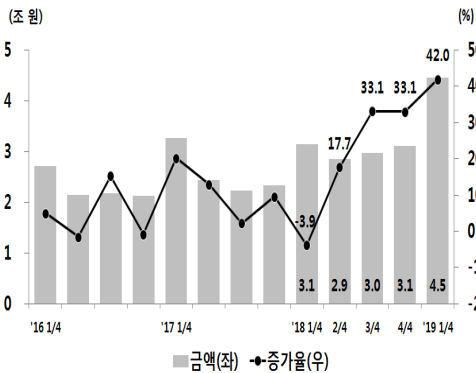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3〉 사망 및 상해 보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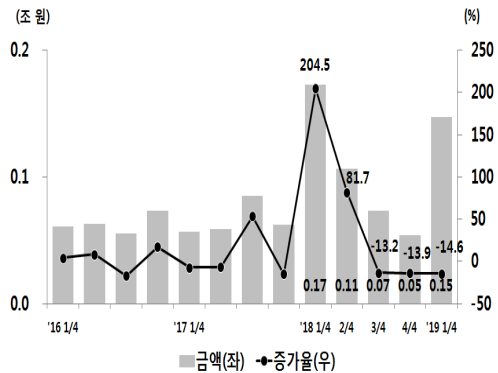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4〉 만기 및 퇴직 보험금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5〉 배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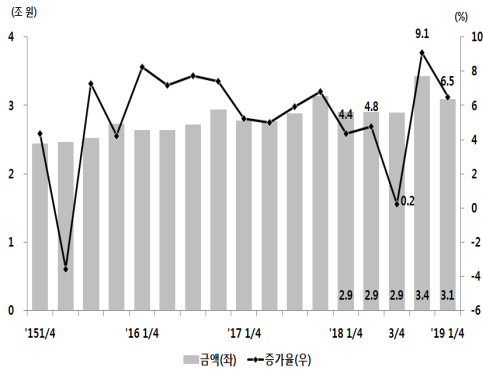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명보험 사업비는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둔화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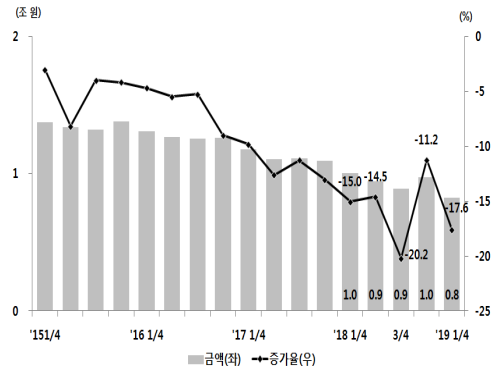
-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2019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함
- 그러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2019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며, 저축성보험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6〉 보장성보험 사업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7〉 저축성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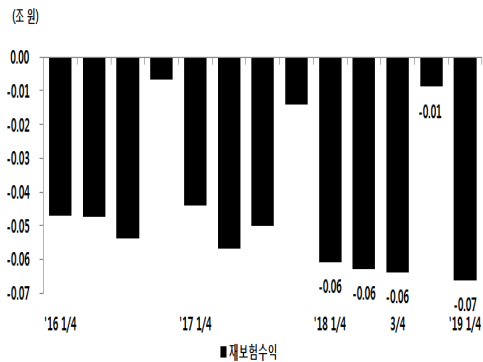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 2019년 1/4분기 생명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07조 원 적자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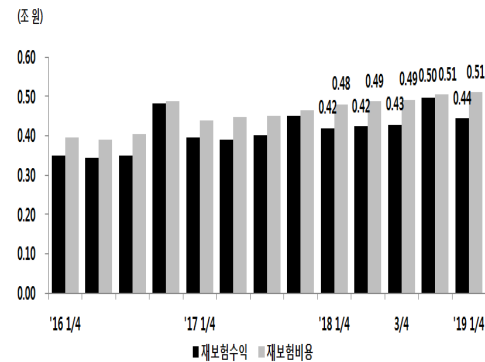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재보험수익과 재보험비용은 각각 0.44조 원과 0.51조 원을 기록함

〈그림 28〉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9〉 생명보험 재보험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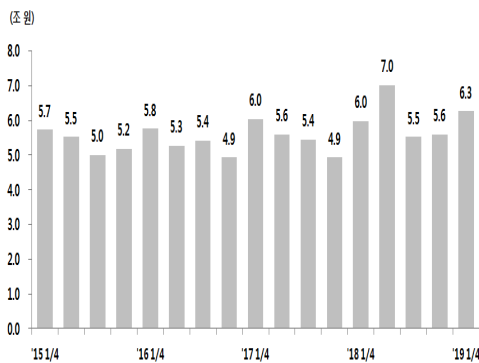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19년 1/4분기 생명보험 산업의 투자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6.3조 원과 0.5조 원 흑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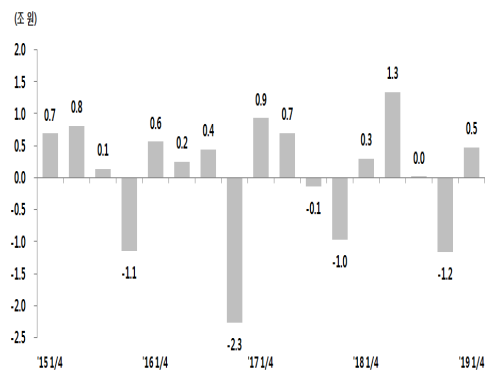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채권 처분 및 평가이익 증가로 인해 확대됨

〈그림 30〉 투자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1〉 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생명보험 산업의 후순위채 규모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4분기에도 약 2,000억 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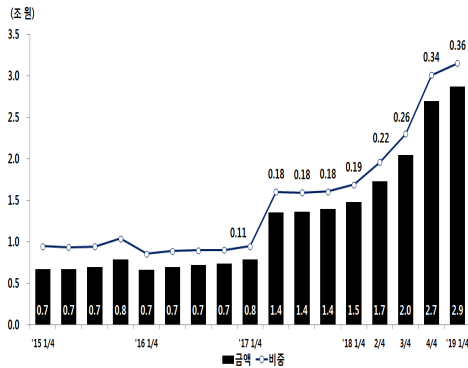
○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가 2017년 1/4분기 0.8조 원에서 2019년 1/4분기 2.9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1%에서 0.36%로 확대됨

○ 자본 확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RBC비율이 낮은 생명보험회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기타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 1/4분기에는 크게 확대됨(2018년 4/4분기 3.64% → 2019년 1/4분기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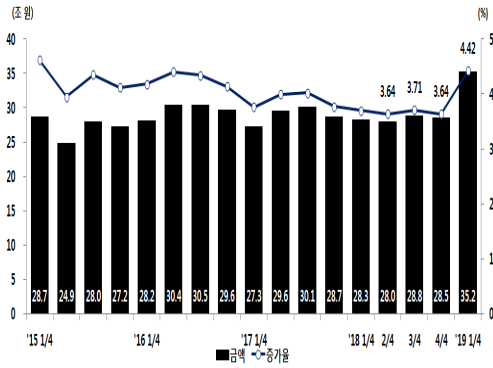
○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그림 32〉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3〉 기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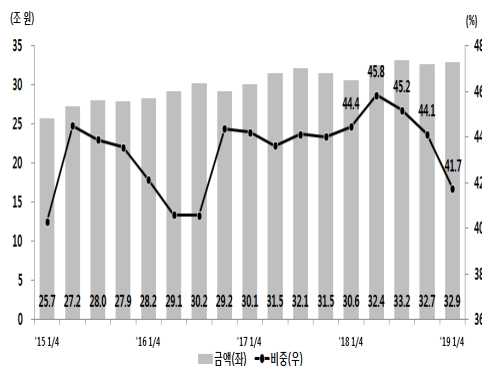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생명보험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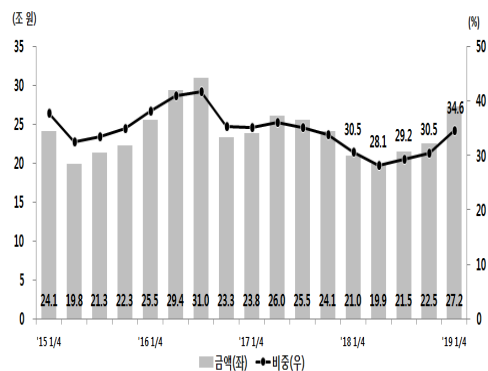
- 2018년 2/4분기부터 이익잉여금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된 반면, 같은 기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됨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는 금리하락으로 인하여 채권평가이익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한편, 신종자본증권과 기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4분기부터 소폭 축소되고 있음

〈그림 34〉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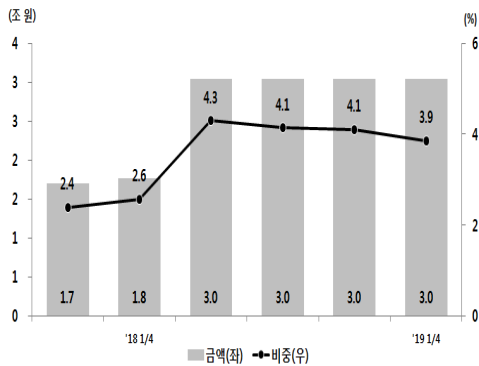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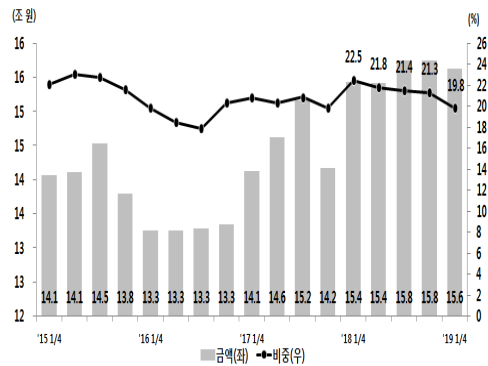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6〉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7〉 기타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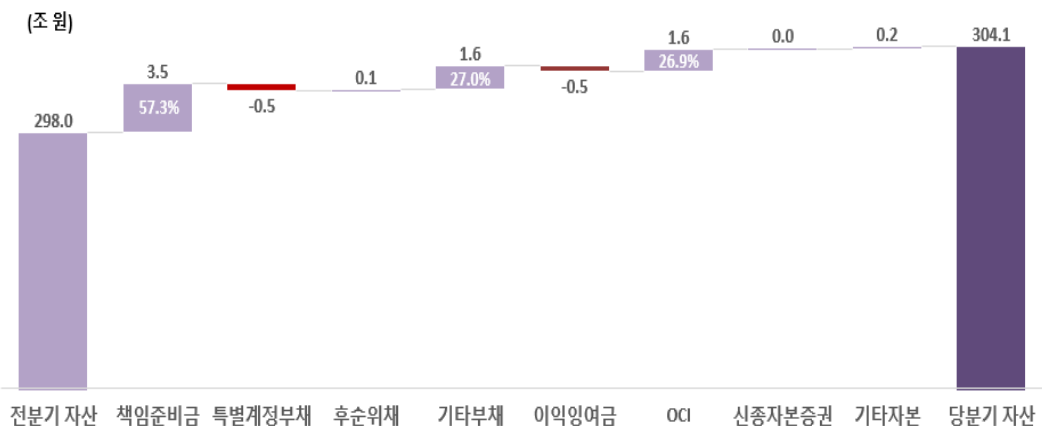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손해보험 성장 요인

- 손해보험산업은 총자산이 6조 756억 원 증가하였는데, 책임준비금, 기타부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순으로 성장에 기여함
 - 책임준비금 증감이 57.3%로 가장 기여도가 높았으며, 기타부채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각각 27.0%와 26.9% 기여함

〈그림 38〉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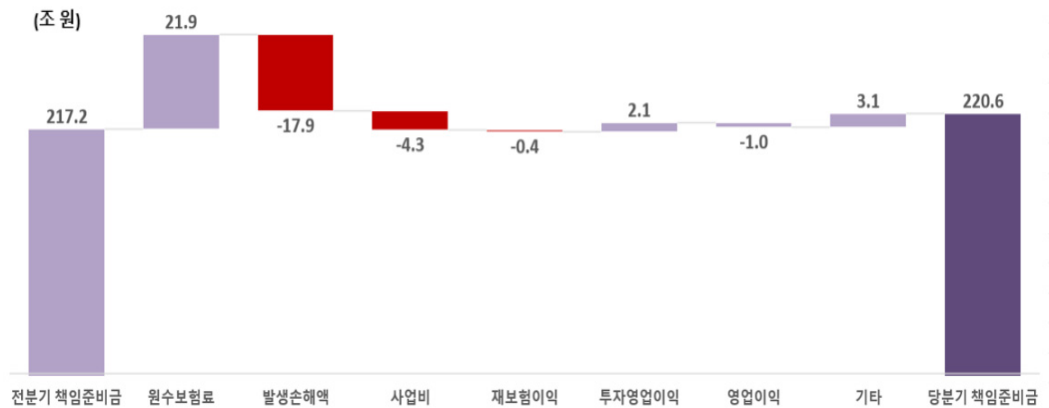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은 3조 4,815억 원 증가하였는데, 발생손해액과 사업비 지출이 원수보험료를 2,851억 원 초과하여 책임준비금 증가를 억제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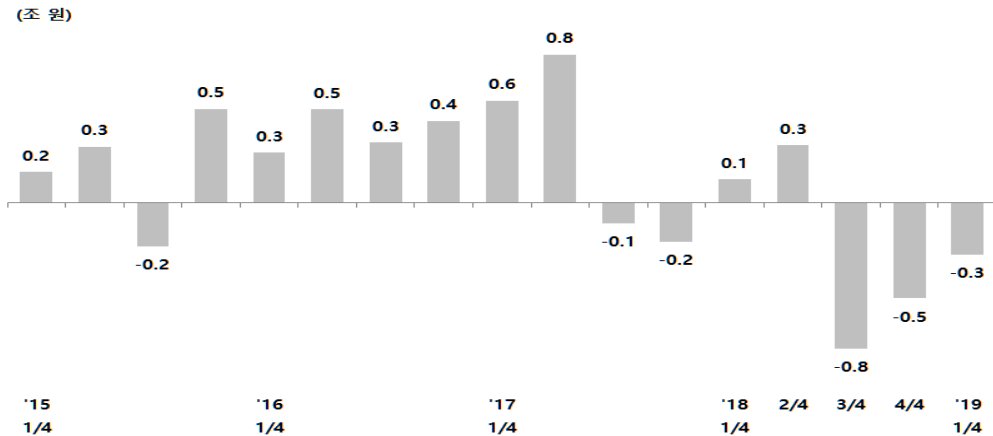
〈그림 39〉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순수신(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사업비)은 2018년 3/4분기 이후 회복세이나,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임

〈그림 40〉 손해보험 순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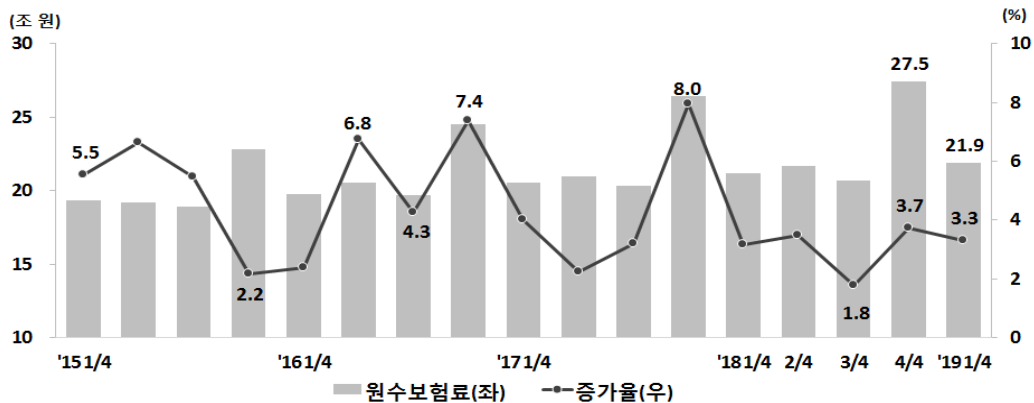
주: 순수신은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2019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1.9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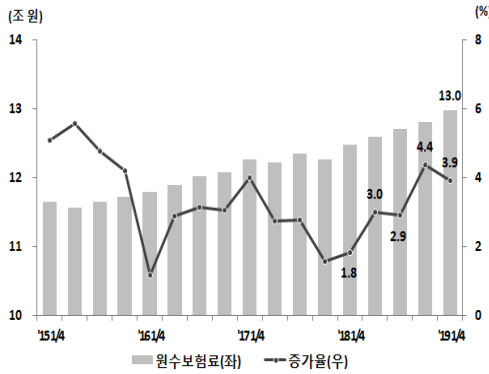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질병보험의 확대에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3.0조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4.3조 원을 나타냄
 - 2019년 하반기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과 특종보험 등의 견조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2.5조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금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하며 역성장이 계속되었으며, 퇴직연금금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1.3조 원을 나타냄
 - 개인연금금은 저금리 환경에서 신규 수요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간 최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향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요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그림 41〉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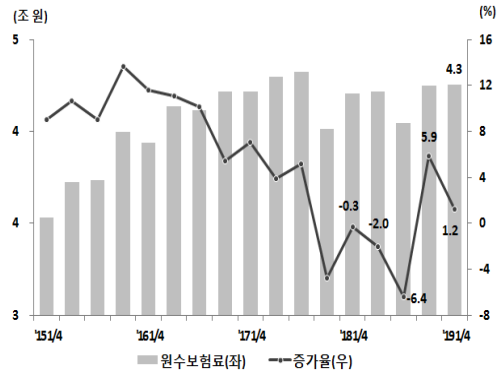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2〉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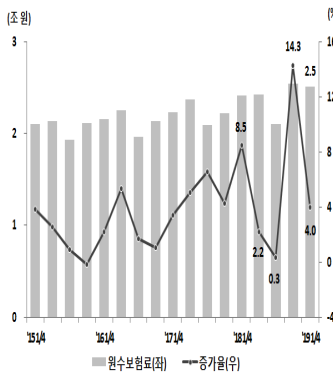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3〉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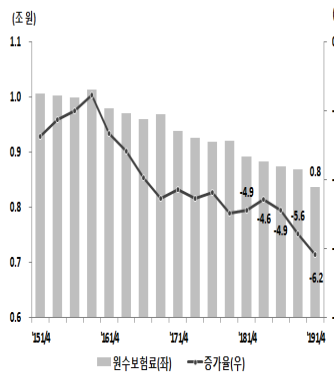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4〉 일반손해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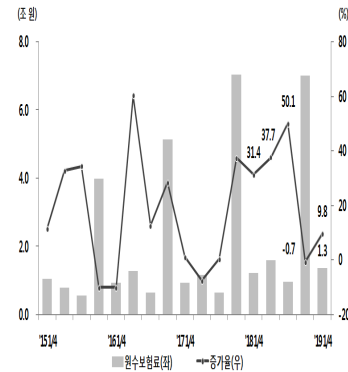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5〉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6〉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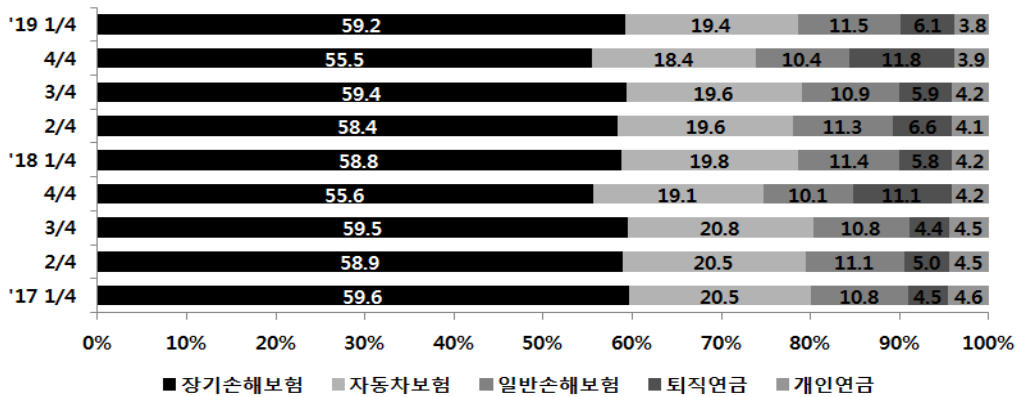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개인연금 비중이 완만하게 축소되는 추세이며, 퇴직연금 비중은 소폭 확대되고 있고,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과 개인연금 비중은 2017년 1/4분기 20.5%, 4.6%에서 2019년 1/4분기 19.4%, 3.8%로 축소됨

○ 같은 기간 퇴직연금 비중은 4.5%에서 6.1%로 확대됨

○ 한편, 장기손해보험은 2019년 1/4분기 5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47〉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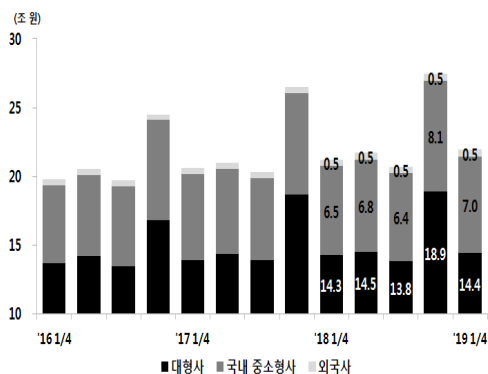


주: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이며, 중소형사나 외국사는 높은 수준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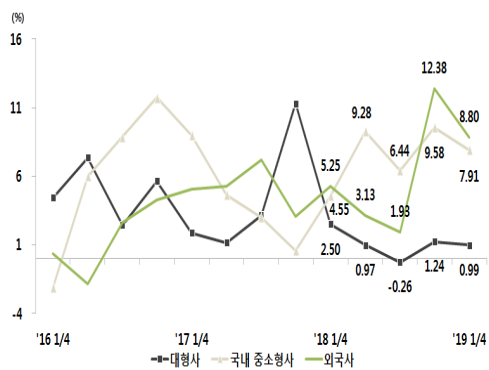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0.99%, 7.91%, 8.80%임

〈그림 4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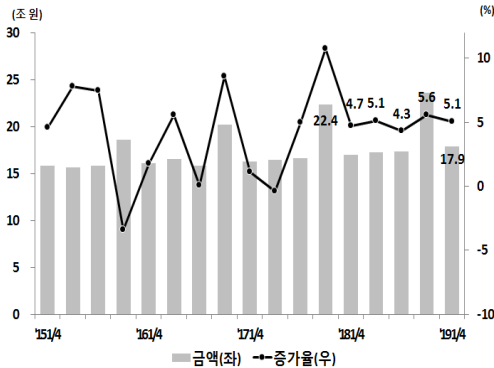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 6.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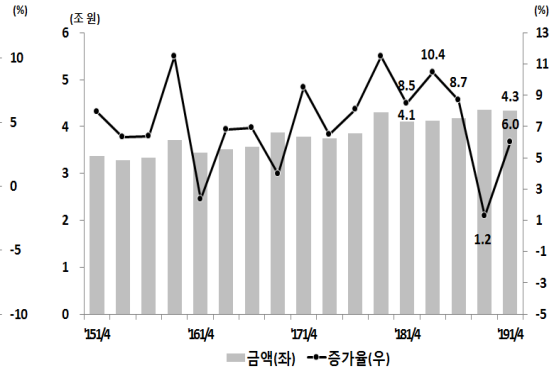
- 종목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이 모두 증가함
- 사업비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개인연금 감소함
 - 장기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신규판매 둔화로 사업비가 줄어든 반면, 장기 상해 및 질병 보험은 판매경쟁 확대로 사업비가 증가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인터넷, 모바일 이용 확산에 따른 온라인보험 판매 증가로, 개인 연금 사업비는 신규판매 위축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임

〈그림 50〉 발생손해액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1〉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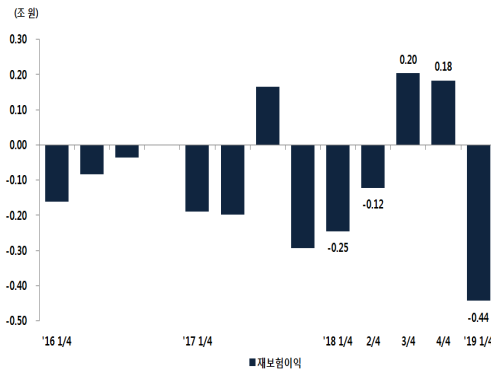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 손해보험 산업의 재보험 이익은 2018년 3/4분기와 4/4분기에는 각각 0.2조원, 0.18조 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2019년 1/4분기에는 0.44조 원 적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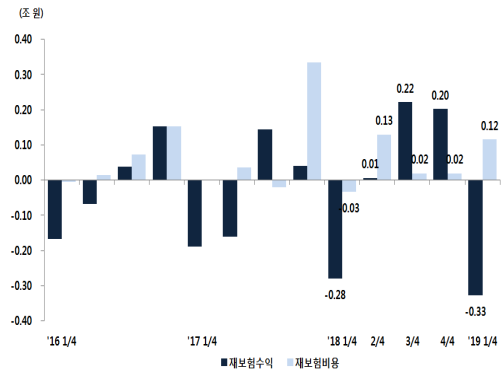
- 이는 출재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여 재보험수익이 줄어든 데다 수재보험금 증가로 재보험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52〉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3〉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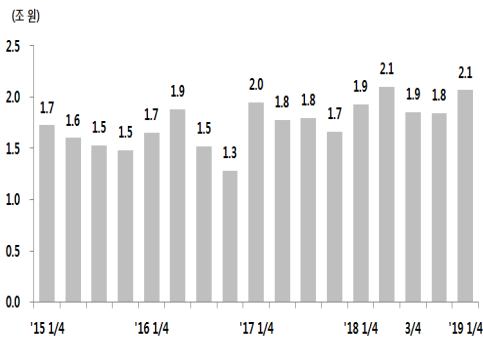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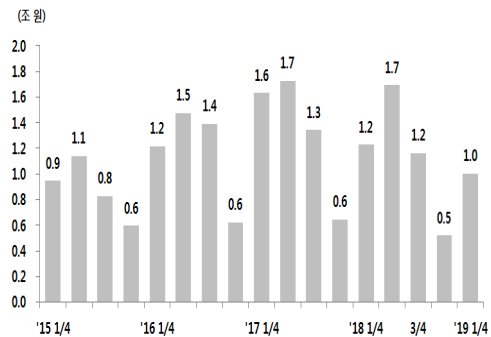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0.2조 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0.2조 원 감소함

〈그림 54〉 투자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5〉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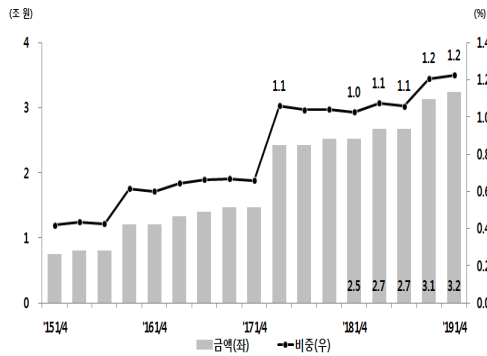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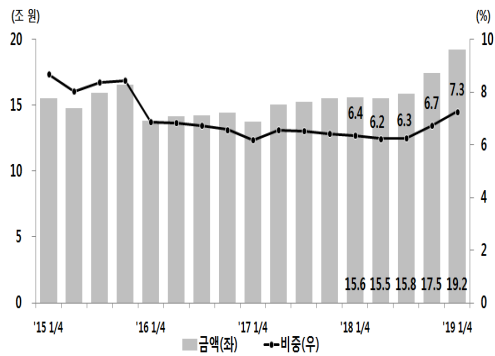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후순위채는 0.1조 원 증가하여 3.2조 원을 기록함
 - 후순위채의 잔액과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타부채는 전분기 대비 1.7조 원 증가하여 19.2조 원을 기록함

〈그림 56〉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7〉 기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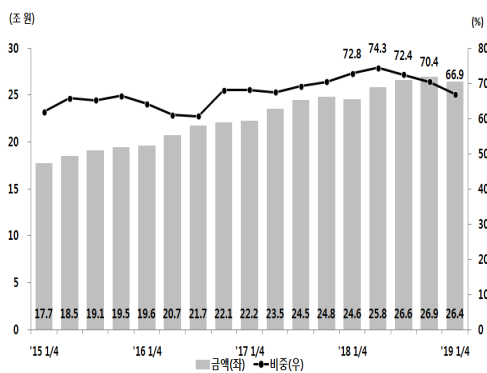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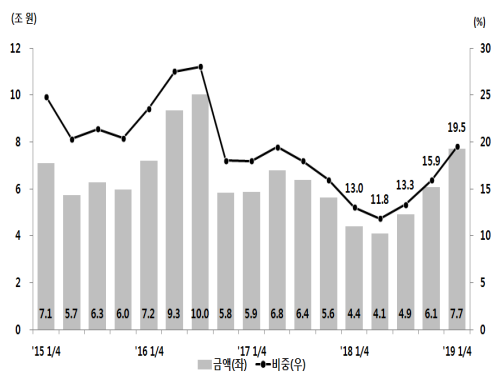
- 손해보험 산업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이는 시증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가운데 채권평가손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58〉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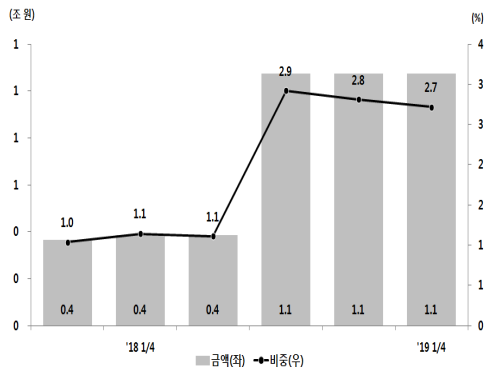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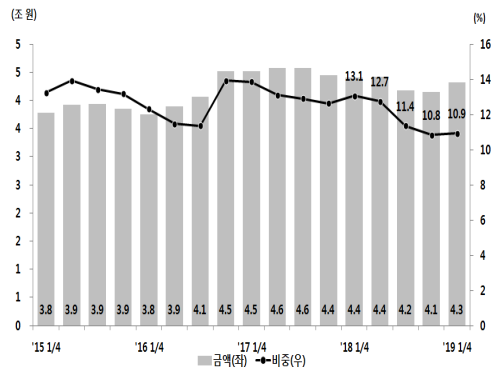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0〉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1〉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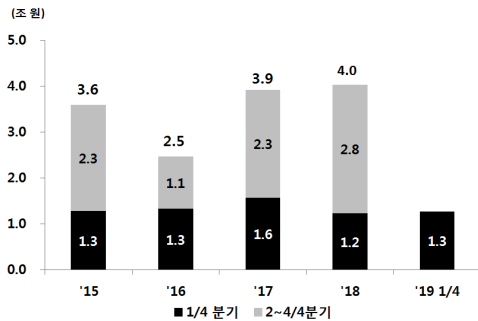
2. 수익성

가. 당기순이익

■ 2019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손해보험 산업 당기순이익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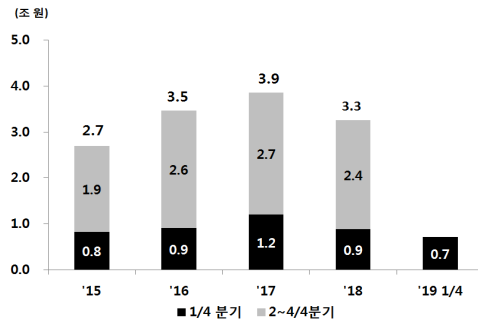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3조 원 흑자를 기록함
 - 이는 보험영업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의 처분 이익 증가에 의해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9년 1/4분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0.7조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8% 감소함
 - 투자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손해율 및 사업비 악화로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됨

〈그림 62〉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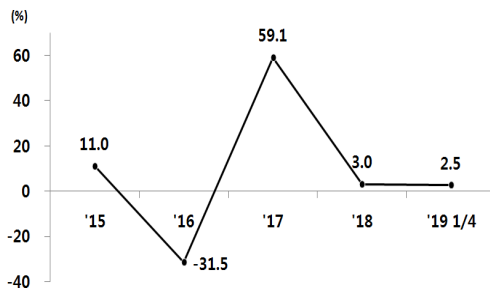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3〉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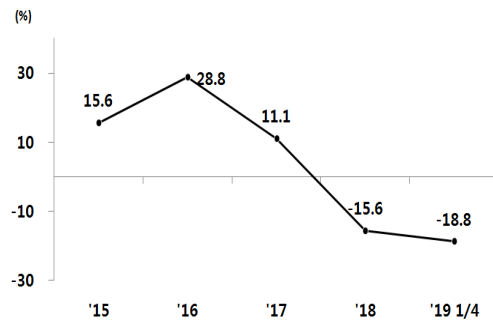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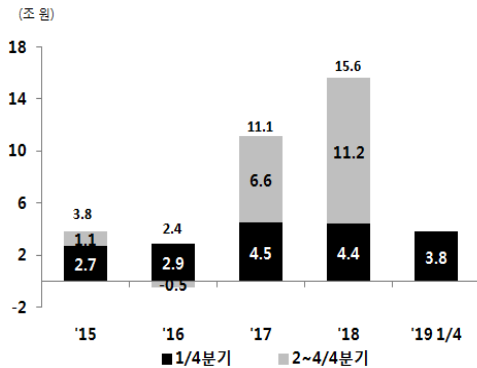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한편, 2019년 1/4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한 3.8조 원을 나타낸 반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5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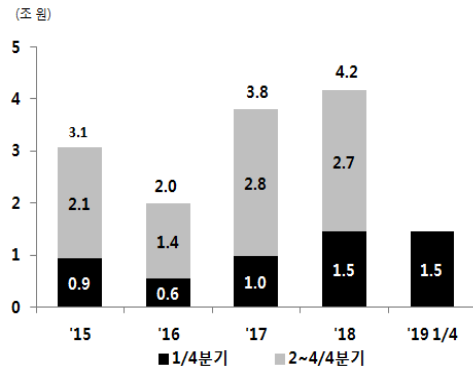
○ 은행의 경우 해당 분기에 자회사투자지분 손실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이익이 감소함

〈그림 66〉 은행 당기순이익



주: 1)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
 2)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15년 6월 이후 합병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67〉 증권 당기순이익



주: 1) 노무라, 다이와, 리딩, 맥쿼리, 신영, 코리아에셋은 3월 말 결산이므로 결산시점을 기간 맞춤함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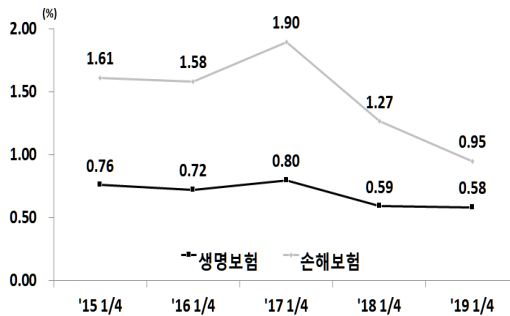
나. ROA, ROE

■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ROA, ROE가 하락세를 나타냄

○ 2019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ROA는 0.58%로 전년 동기보다 0.01%p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의 ROA는 0.95%로 전년 동기보다 0.32%p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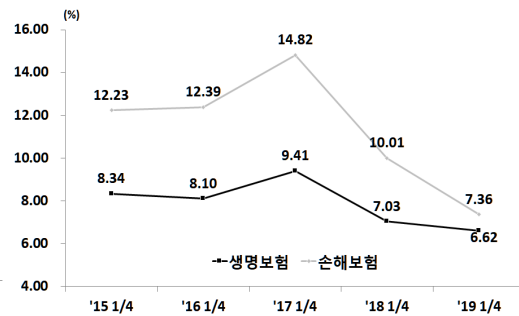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보다 0.41%p 하락한 6.62%를,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보다 2.65%p 하락한 7.36%를 나타냄

〈그림 68〉 보험산업 ROA



주: ROA는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9〉 보험산업 ROE



주: ROE는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생명보험

■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신규 판매 확대 부진 및 수입보험료 감소 등으로 해지율, 사업비율, 지급률이 상승하고 있음

- 2018년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은 전년 대비 0.3%p 상승한 8.8%를 기록하였고, 2019년 1/4분기에는 9.0%까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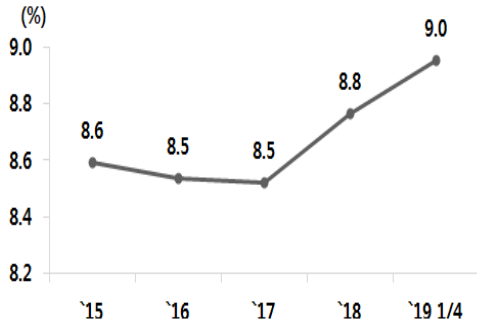
- 이는 해지액이 늘어난 데다 신규 판매 부진으로 보유계약액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생명보험산업의 사업비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사업비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감소가 사업비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임

-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수입보험료는 감소함에 따라 2016년부터 상승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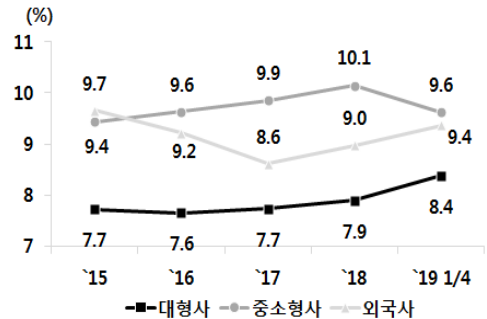
- 2018년까지 외국사의 해지율, 사업비율, 지급률은 국내사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9년 1/4분기에는 국내사와 유사하게 모든 지표가 상승함

〈그림 70〉 생명보험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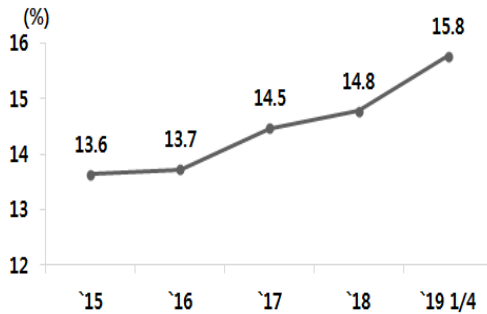
주: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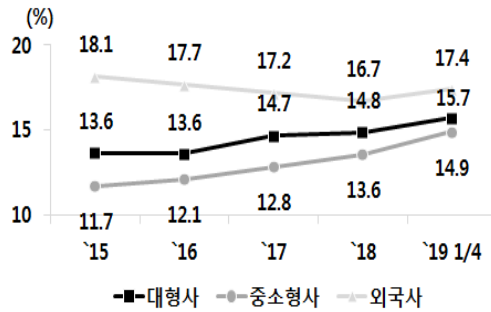
주: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2〉 생명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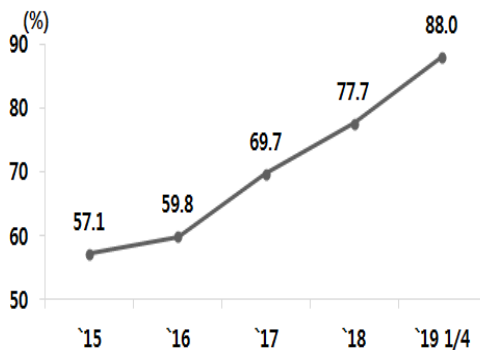
주: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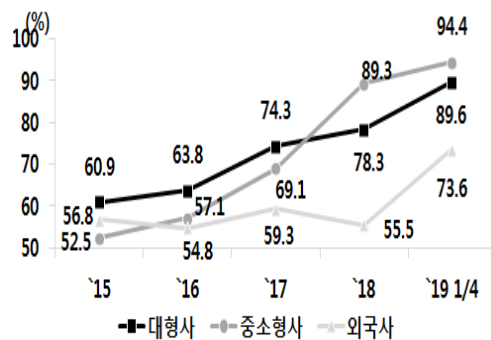
주: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4〉 생명보험 지급률



주: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지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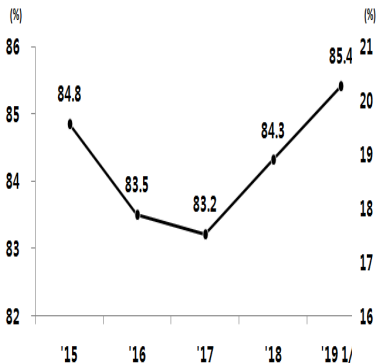
주: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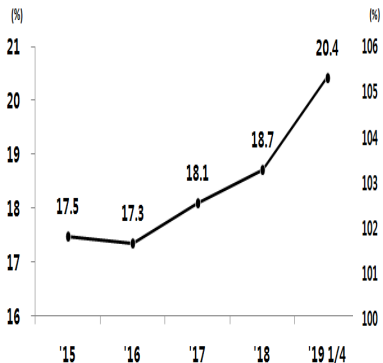
■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음

- 2018년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1.1%p 상승한 84.3%를 기록하였고, 2019년 1/4분기에는 85.4%까지 악화됨
- 사업비율은 2016년 17.3%에서 2018년 18.7%로 상승한 데 이어 2019년 1/4분기에는 20.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특히,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사업비 증가가,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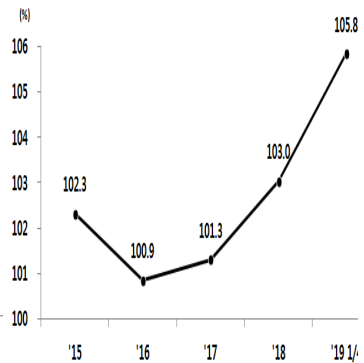
〈그림 76〉 손해보험 손해율



〈그림 77〉 손해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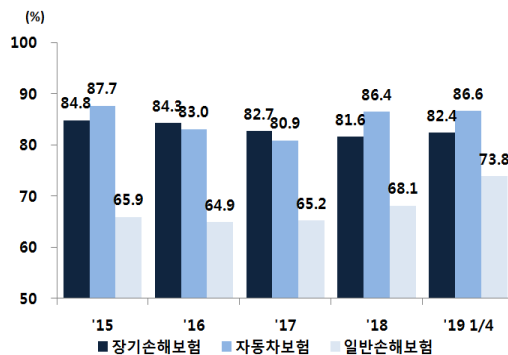


〈그림 78〉 손해보험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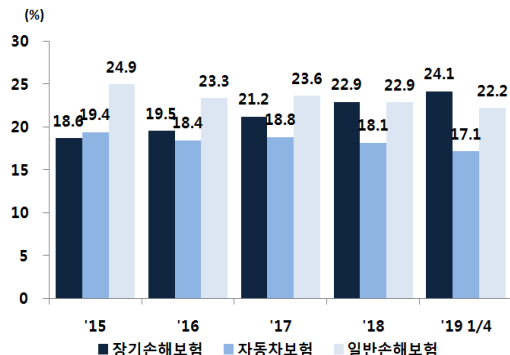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9〉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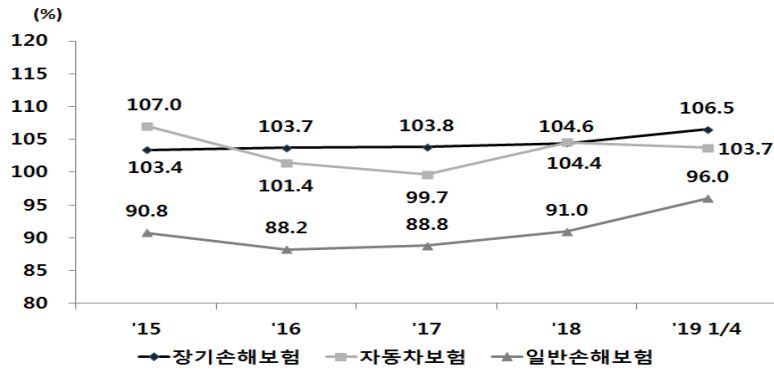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0〉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1〉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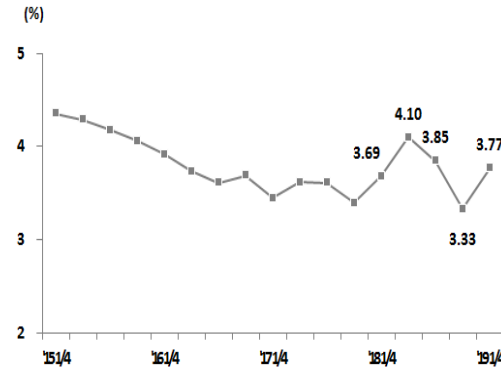
라.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운용자산이익률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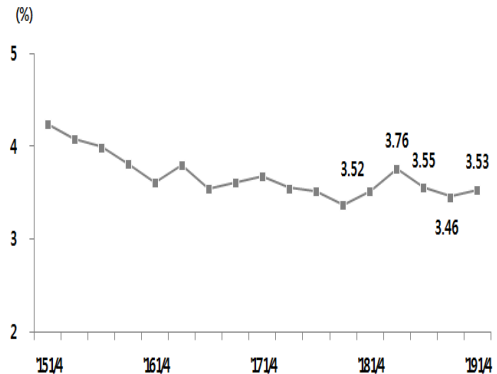
- 다만, 2018년 중 운용자산이익률이 주식 처분 이익의 일시적 증가로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으며, 2019년 1/4분기에도 채권 처분 이익 확대로 운용자산이익률이 상승함
- 2019년 1/4분기 생명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0.08%p 상승한 3.77%, 손해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0.01%p 상승한 3.53%를 나타냄

〈그림 82〉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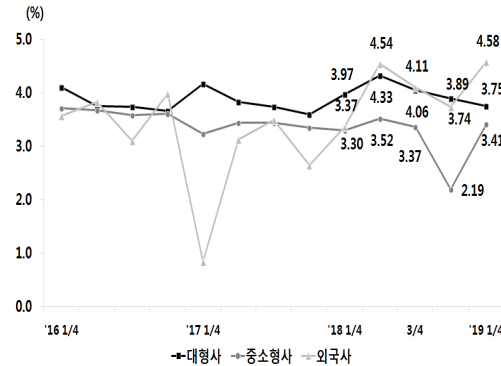
〈그림 83〉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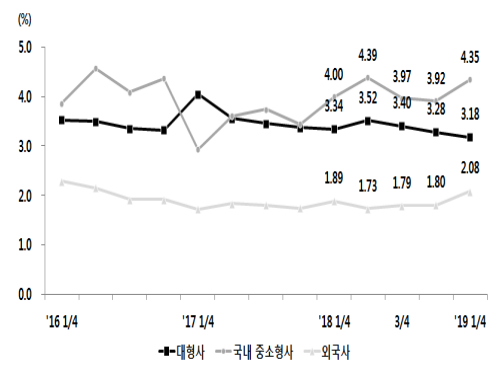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국내 중소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국내 중소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았음

〈그림 84〉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 연기준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5〉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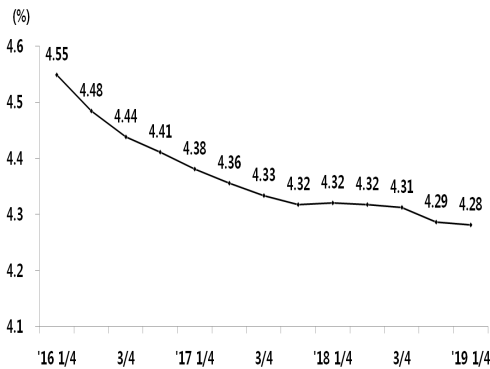
■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는 2016년 1/4분기 4.55%에서 2019년 1/4분기 4.28%까지 하락함

○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는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2016년 이후 약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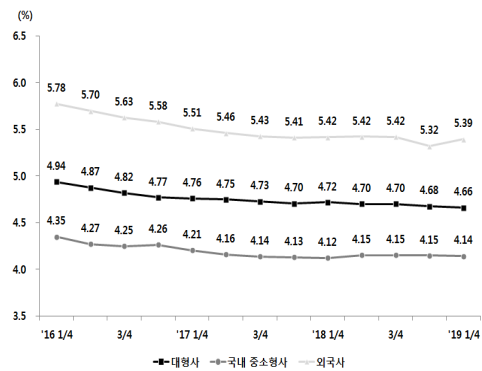
중·후반)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외국사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적립금의 평균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임

〈그림 86〉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그림 8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 / 총 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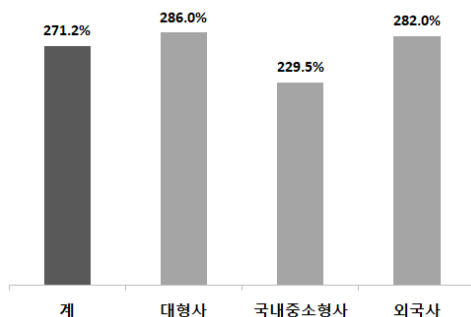
3. 리스크³⁾

가. 총괄

■ 2018년 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생명보험 271.2%, 손해보험 233.4%로 나타났으며, 중소형사보다 대형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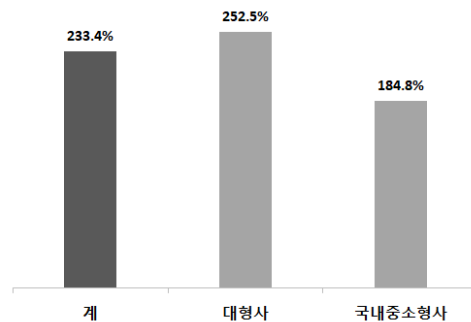
-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증가 및 2018년 4분기 당기순이익 실현으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이 증가⁴⁾하여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액 증가와 변액보증위험액 산정기준 강화⁵⁾에 따른 시장위험액 증가로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도 소폭 증가함

〈그림 8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지급여력비율



주: 24개 생명보험회사가 대상임⁶⁾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지급여력비율



주: 11개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대상임⁷⁾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8년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보유 리스크 중 신용리스크의 비중이 각각 39.2%, 37.9%로 가장 높지만, 회사 유형별로 보면 각 리스크 비중이 상이함

3) 본 장은 반기마다 자세히 공시되는 위험관리 부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이번 호에서는 2018년 말 공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4. 16), “18.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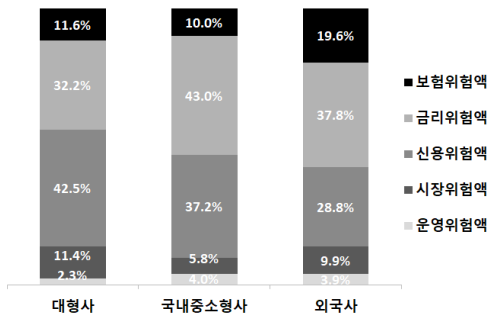
5) 변액보증위험액 산정기준: 예상 손실액 상위 15% 평균 → 상위 10% 평균

6) 대형사(삼성, 교보, 한화), 국내중소형사(DB, 흥국, 미래에셋, DGB, KDB, 신한, 오렌지라이프, 하나, KB, IBK, 교보라이프플래닛, 농협), 외국사(동양, 푸르덴셜, 처브라이프, BNP파리바카디프, 푸본현대, 라이나, AIA, 메트라이프, ABL)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7) 대형사(삼성, 현대, DB, KB), 국내중소형사(한화, MG, 메리츠, 롯데, 흥국, 더케이, 농협)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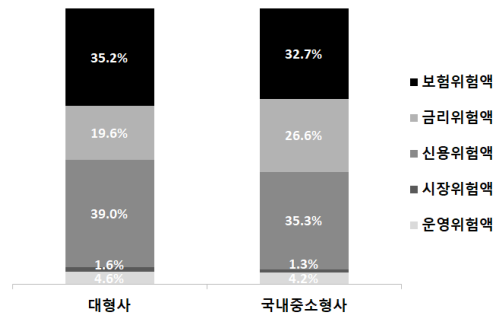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신용위험 비중이 42.5%를 차지한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금리위험 비중이 각 43.0%,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모두 신용위험액과 보험위험액 비중이 약 70%를 차지함

〈그림 9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9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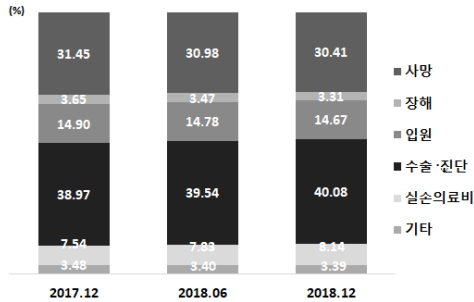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나. 보험리스크

1)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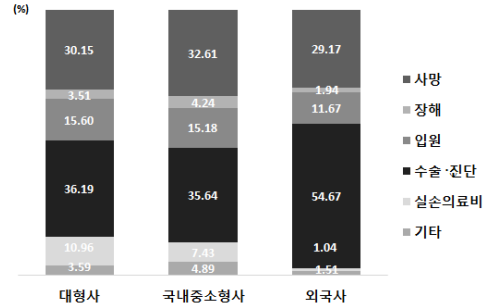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사망, 장해,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수술·진단 보장 비중은 전년 대비 1.11%p 상승한 40.08%를 나타낸 반면, 사망 보장 비중은 전년 대비 1.04% 하락한 30.41%를 나타냄
- 외국사의 경우 국내사에 비해 수술·진단 보장 비중이 54.67%로 매우 크며,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이 작은 것이 특징임

〈그림 92〉 생명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 장해, 입원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9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보장 익스포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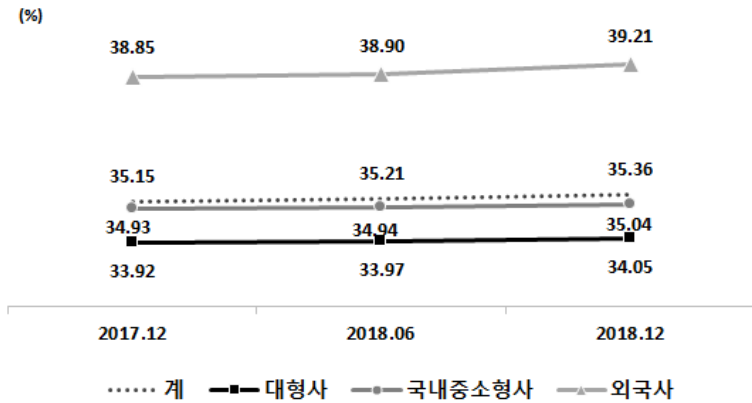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사망, 장해, 입원 순임
자료: 경영공시

■ 2018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2018년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전년 대비 0.21%p 상승한 35.36%이며, 외국사의 경우 0.36%p 상승하여 대형사(0.13%p), 중소형사(0.11%p)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94〉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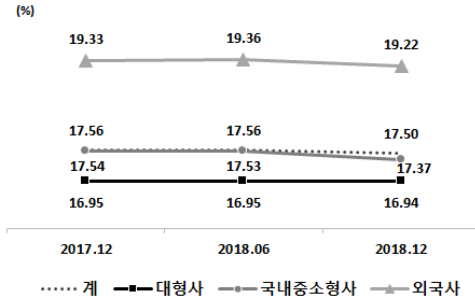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실손의료비 보장의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입원 보장 리스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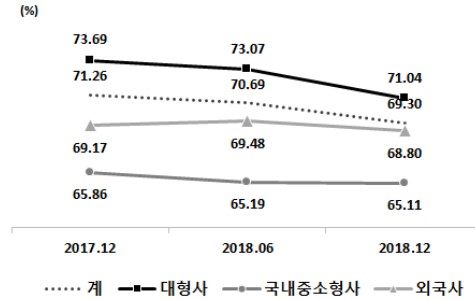
- 사망과 장애, 입원 보장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각각 전년 대비 0.05%p, 1.96%p, 1.10%p 하락한 17.50%, 69.30%, 12.31%를 나타냄
- 대형사의 경우 장애 보장 보험가격위험계수의 하락폭이 2.64%p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입원 보장 보험가격위험계수의 하락폭이 각각 1.65%p, 2.53%p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반면, 수술·진단과 실손의료비 보장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각각 전년 대비 0.003%p, 2.41%p 상승한 55.90%, 25.48%를 나타냄
- 수술·진단 보장의 경우 대형사는 보험가격위험계수가 전년 대비 0.18%p 하락한 반면, 국내중소형사 및 외국사는 증가하였으며, 실손의료비 보장은 대형사, 중소형사 모두 보험가격위험계수가 각각 전년 대비 2%p 이상 크게 상승함

〈그림 95〉 생명보험 보장별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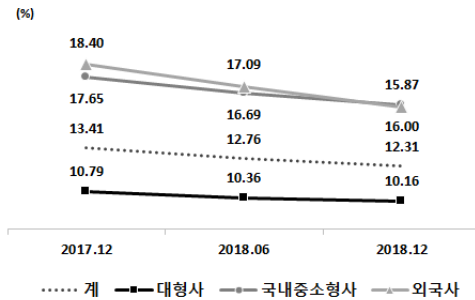
(1) 사망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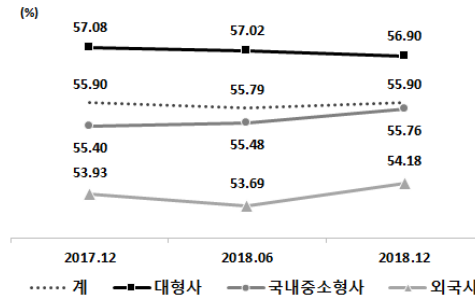
(2) 장애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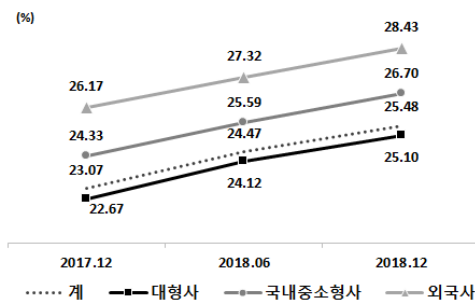
(3) 입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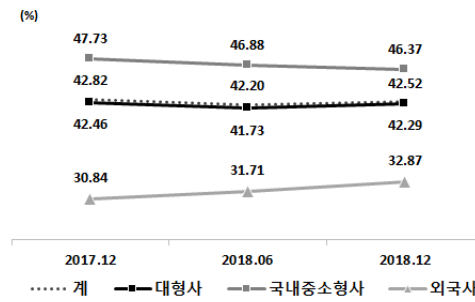
(4) 수술·진단보험



(5) 실손의료비보험



(6) 기타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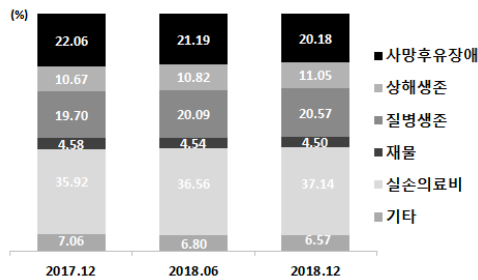
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상해생존, 질병생존,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사망후유장애, 재물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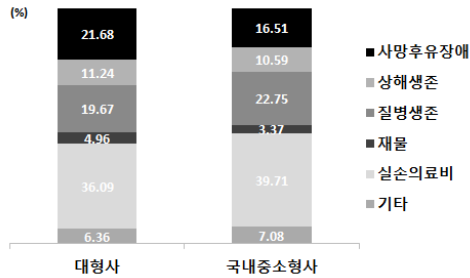
- 질병생존, 실손의료비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0.48%p, 0.58%p 상승한 20.57%, 37.14%를 나타낸 반면, 사망후유장애 비중은 전년 대비 1.01%p 하락한 20.18%를 나타냄
- 대형사의 경우 국내중소형사에 비해 사망후유장애 비중이 21.68%로 큰 편이며, 질병생존 보장 비중이 작은 것이 특징임

〈그림 96〉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97〉 회사 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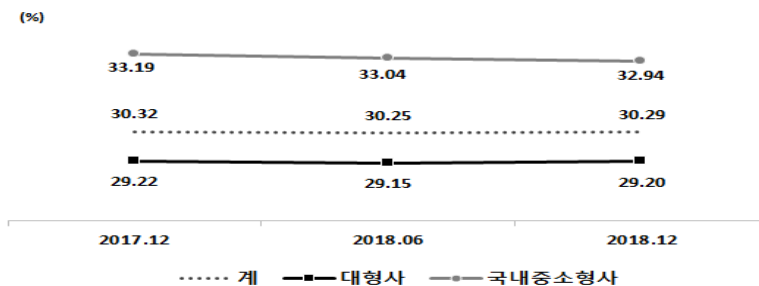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약 30.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중소형사는 보험가격위험계수가 2017년 말 33.19%에서 2018년 말 32.94%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98〉 회사 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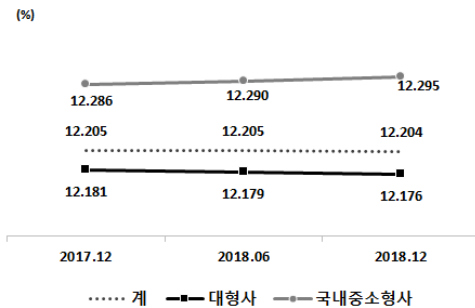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실손의료비 보험가격위험계수는 하락세인 반면 상해생존 및 질병생존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며 보장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모습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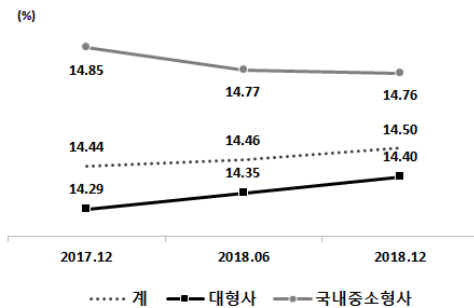
○ 손해보험산업은 생명보험산업과 다르게 실손의료비 보장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임

〈그림 99〉 장기손해보험 보장별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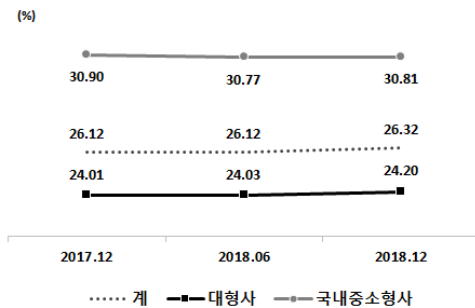
(1) 사망후유장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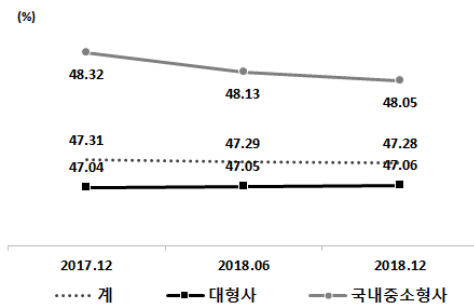
(2) 상해생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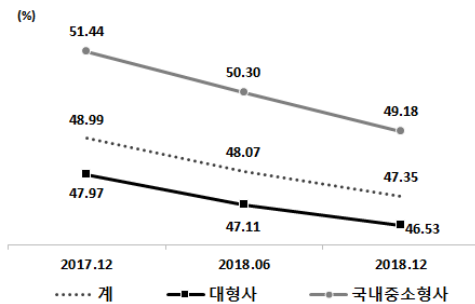
(3) 질병생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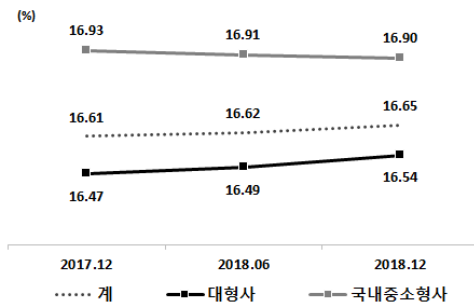
(4) 재물보험



(5) 실손의료비보험



(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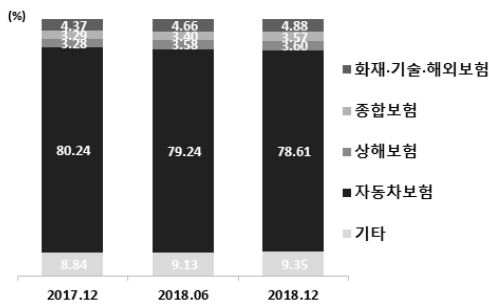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나) 자동차·일반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저]**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는 전년보다 하락하였고 나머지 보험의 익스포저는 상승함

-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전년 대비 1.63%p 하락한 78.61%를 나타냈으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은 각각 0.51%p, 0.28%p, 0.32%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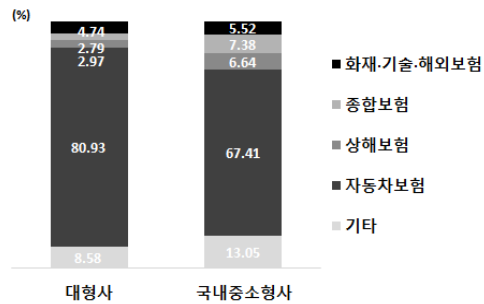
〈그림 100〉 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재·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보험이 포함됨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1〉 회사 유형별 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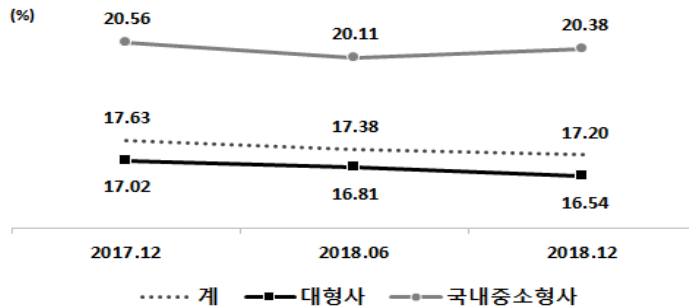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재·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보험이 포함됨

자료: 경영공시

■ **[보험가격위험계수]** 자동차·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2017년 말 대비 하락함

- 2018년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전년 대비 0.42%p 하락한 17.20%이며,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전년 대비 0.48%p, 0.18%p 하락한 16.54%, 20.38%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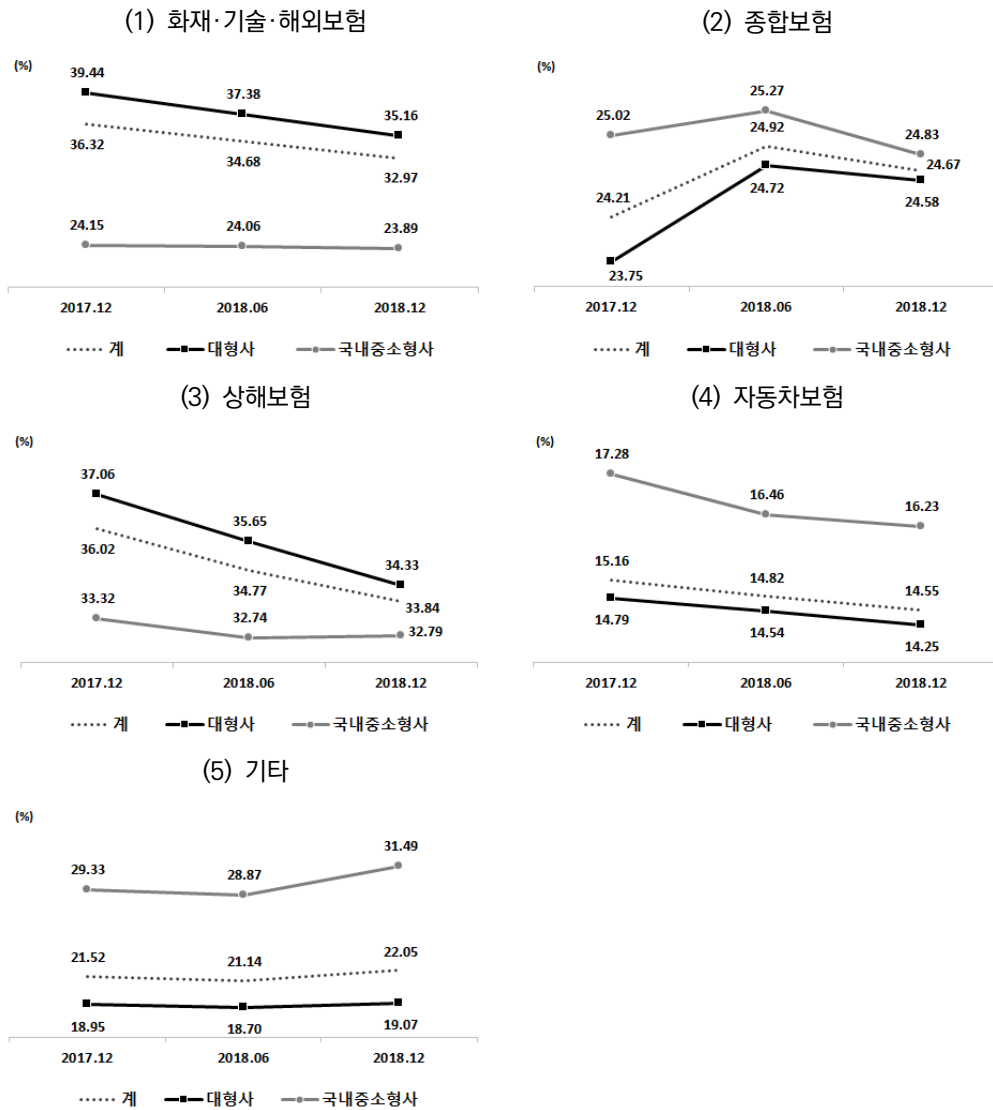
〈그림 102〉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 **[보험가격위험계수]** 2017년에 비해 화재·기술·해외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가격 위험계수는 하락한 반면, 종합보험과 기타 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소폭 상승함

〈그림 103〉 자동차·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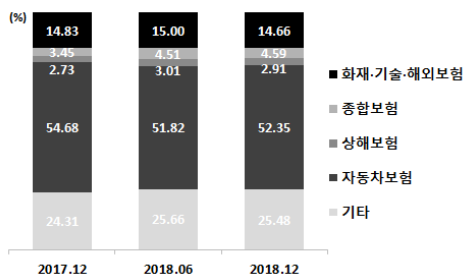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지급준비금위험 익스포저]** 2017년에 비해 자동차보험, 화재·기술·해외보험 비중이 줄고 종합보험, 상해보험 비중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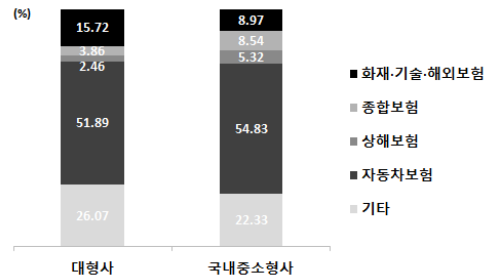
○ 회사 유형별로 보면,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 비중이 높은 반면 화재·기술·해외보험 비중은 낮음

〈그림 104〉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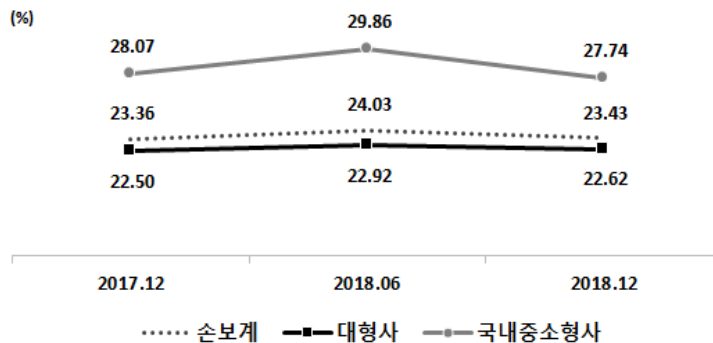
〈그림 105〉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 **[지급준비금위험계수]** 2017년에 비해 대형사의 지급준비금위험계수는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의 지급준비금위험계수는 하락함

〈그림 106〉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지급준비금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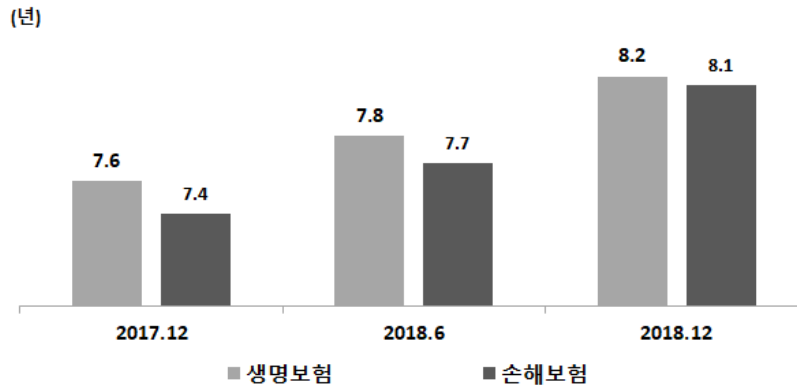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다. 금리위험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하고 있음

○ 저금리 환경과 향후 도입될 회계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하고 있음

〈그림 107〉 자산듀레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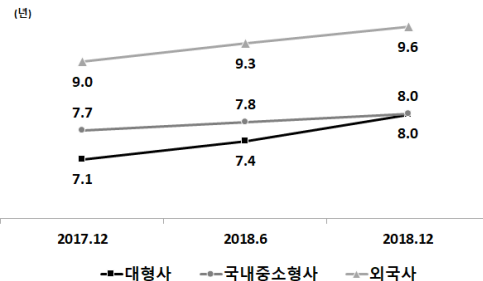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생명보험은 대형사가 자산듀레이션을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시키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중소형사가 자산듀레이션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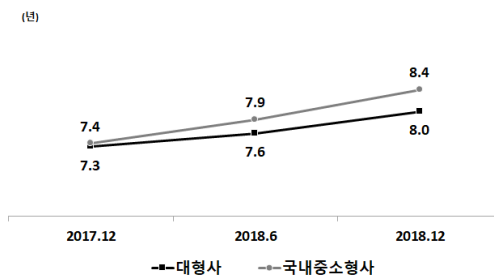
○ 2017년 말 대비 생명보험 대형사는 0.9년을, 손해보험 중소형사는 1.0년을 확대시킴

〈그림 10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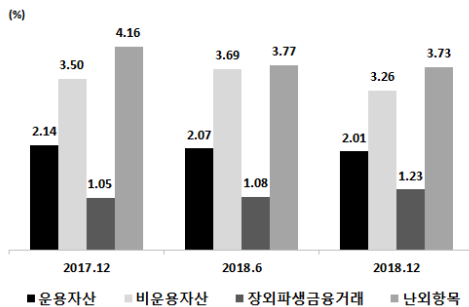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라. 신용위험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운용자산의 신용위험계수가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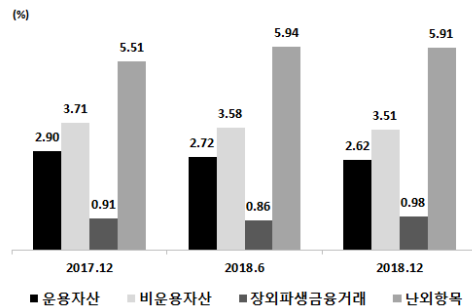
- 운용자산의 신용위험계수는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2017년 말 2.14%에서 2018년 말 2.01%로,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2017년 말 2.90%에서 2018년 말 2.62%로 소폭 하락함
- 보험산업은 장기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서 신용위험계수가 낮아진 것으로 보임

〈그림 110〉 생명보험 신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1〉 손해보험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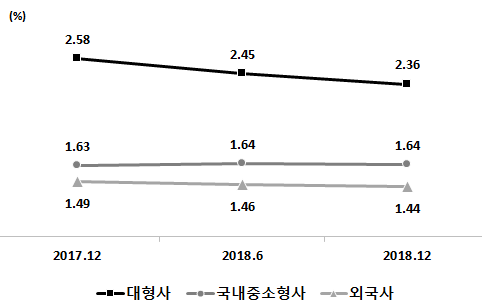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생명보험 중소형사의 경우 자산다변화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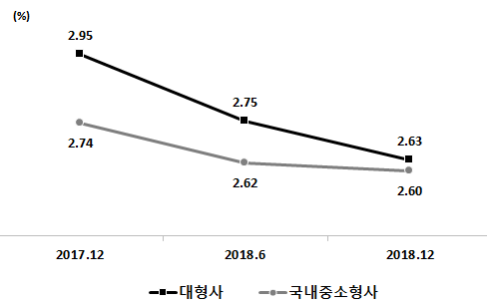
- 생명보험 중소형사는 장기 안전자산 매입에 의한 수익률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을 일정 비중 이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12〉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3〉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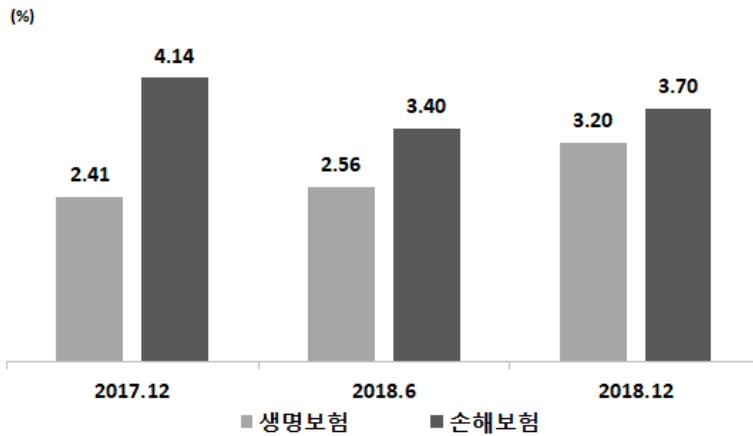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마. 시장위험

■ 2017년 말에 비해 손해보험회사는 시장위험계수가 하락한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시장위험계수가 대폭 증가함

○ 생명보험회사는 금리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변액보험보증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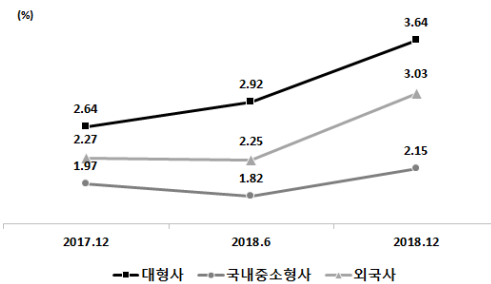
〈그림 114〉 시장위험계수 추이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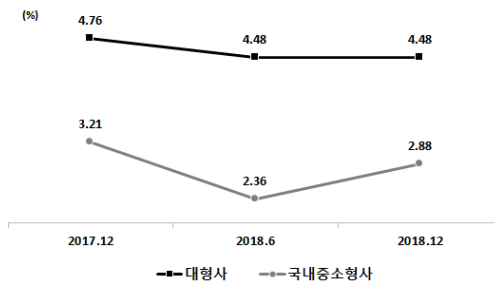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변액보험 비중이 높은 대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위험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1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Ⅲ. 해외보험 동향

- 이번 해외보험 동향은 2018년 세계 보험산업 규모 및 전망과 함께 미국 보험회사의 기타 장기투자자산 동향, 2018년 일본 생명보험산업 주요 실적,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동향을 수록함
 - Swiss Re에 따르면 2018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5조 1,930억 달러(세계 GDP의 6.1%에 해당)로 전년 대비 1.5% 성장(실질)하였으며, 2019/20년까지 2.9% 성장(실질)이 전망됨
 - 2018년 우리나라 수입보험료는 세계 보험산업의 1.9%를 차지하여 세계 7위를 기록하였으며, 2029년 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국 보험산업의 기타장기투자자산에서 헤지펀드 투자가 축소되면서 비중 또한 축소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투자전략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투자전략인 Long/Short Equity 전략과 다양한 전략에 자산을 배분하는 다중전략(Multi-Strategy)이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함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연간 영업이익은 3조7,714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387.7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함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72.1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하였고, 보유계약액은 982.9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0.9% 감소함
 -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2조 6,746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중국계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각각 57개사, 28개사가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92.6%, 7.4%임
 - 2013~2017년 5년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을 볼 때 평안생명과 안방생명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한 반면, 중국생명,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함

1. 2018년 세계 보험산업 규모 및 전망¹⁾

가. 경제환경

■ Swiss Re는 2020년까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8년 3.2%보다 낮은 2.8%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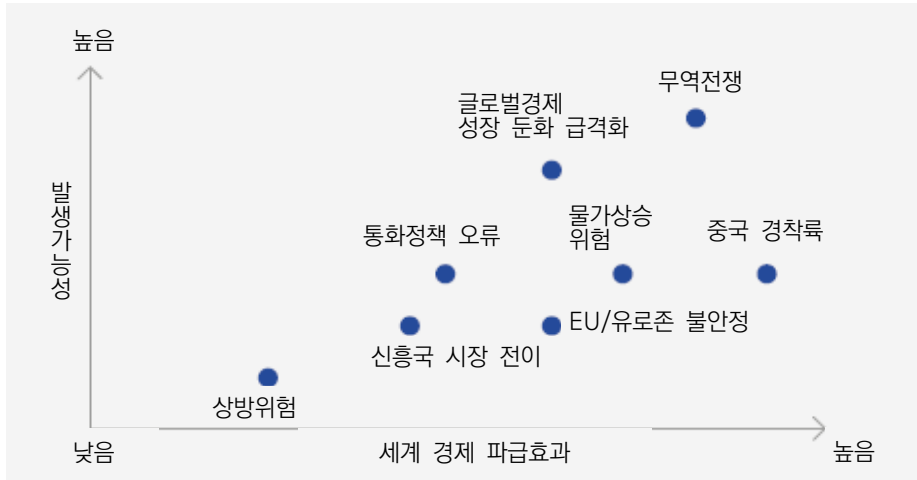
- 선진국에서의 견조한 노동시장과 임금상승은 보험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무역환경 침체는 관련 보험종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소한 향후 2년간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영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는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무역긴장 확대이며, 중국 경착륙 가능성, EU 불안정성, 물가상승으로 인한 통화정책 오류 가능성 등임

- Swiss Re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30%로 예상함
- 두 번째 위험요인인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15%로 예상함
- 브렉시트 이후, 이민자 이슈와 같은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EU 및 유로존의 불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15%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의 물가상승 확대가 예기치 않은 통화긴축을 야기하여 발생하는 통화정책 오류가 세계 경제성장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함
 - 미국 노동시장 강세로 물가상승 위험이 높아지면 미 연준은 예상치 않게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미국의 통화정책 오류는 채권금리 급등, 미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위험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음

1) Swiss Re(2019. 7. 4), "World insurance in 2018: the great pivot east continues", Sigma No.3를 요약 정리함

〈그림 1〉 글로벌 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



자료: Swiss Re(2019. 7. 4), Sigma No.3, p. 7

나. 보험산업

- 2018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5조 1,930억 달러(세계 GDP의 6.1%에 해당)로 전년 대비 1.5% 성장(실질)하였으며, 2019/20년까지 2.9% 성장(실질)이 전망됨
- 2017년 대비 성장률 둔화는 유럽, 중국, 남미 지역의 생명보험 실적악화 때문임
 - Swiss Re는 미국의 보험료 둔화가 심하지 않고 영국의 1회성 대형 거래로 2017년 성장률을 1.5%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였음
- Swiss Re는 2018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산업의 상품구조 분석을 통해 향후 종목별 취약점을 전망함
 - 생명보험의 88%를 차지하는 저축성 상품은 현재 주력상품이나 저금리와 자본 규제로 인해 상품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함
 - 손해보험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보험료 및 보험금 청구비용 감소가 예상됨

■ 2018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8조 달러로 전년 대비 0.2% 성장(실질)하였으며 2019/20년 2.9% 성장(실질)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 생명보험산업 성장률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8%로 하락하였으며, 신흥국은 2017년 13% 성장 이후 2018년 2.0%로 하락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중국의 생명보험 실적 악화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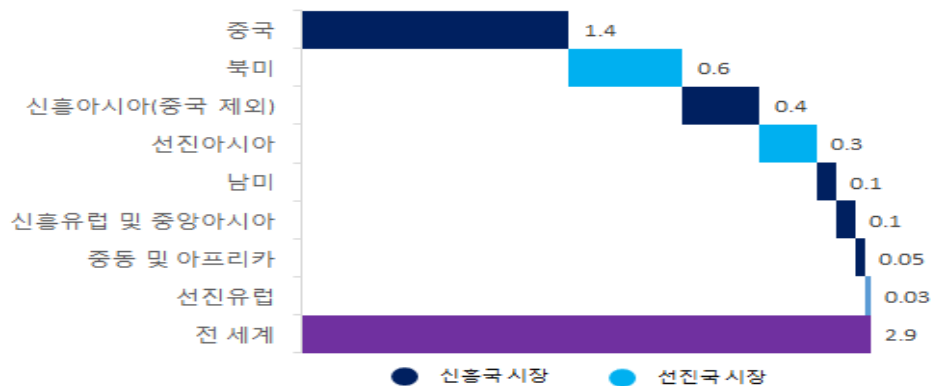
- 중국의 감독규제 강화로 단기 유니버설 생명보험 상품판매가 감소하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며²⁾ 수익성이 악화됨

○ 중국의 회복과 미국, 캐나다 주도의 성장으로 2019/20년까지 세계 생명보험 실질성장률은 2.9%로 전망됨

- 중국은 글로벌 생명보험 성장의 거의 절반(1.4%p)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북미 성장률 기여도 전망치(0.6%p)의 두 배 이상의 수치임

〈그림 2〉 2020년 지역별 실질보험료 성장률 기여도 전망

(단위: %p)



자료: Swiss Re(2019. 7. 4), Sigma No.3, p. 15

2) 2018년 상해종합지수는 전년 대비 25% 하락함

■ 2018년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4조 달러로 전년 대비 3.0% 성장(실질)하였으며 2019/20년 3.0%의 실질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은 선진국(1.9%)에 비해 신흥국(7.1%) 성장률이 더 높았으며, 기타지역에 비해 중국과 북미지역의 성장 기여도가 컸음

- 중국은 건강 및 상해보험 증가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비자동차보험 부문 성장이 긍정적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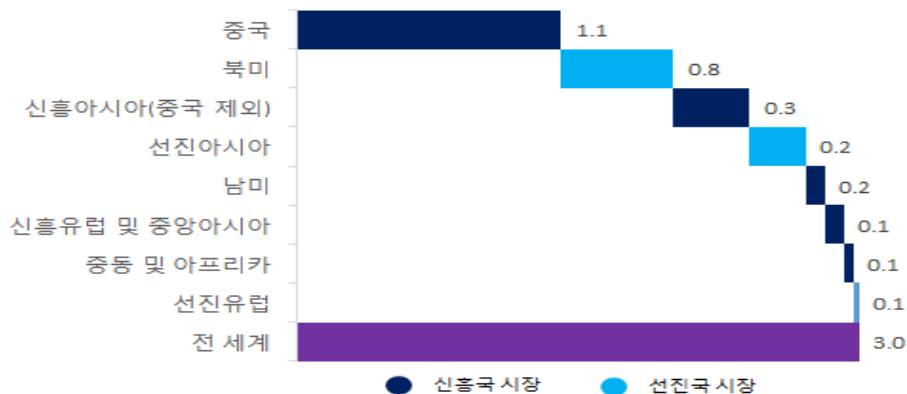
○ 중국과 함께 미국, 캐나다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향후 2019/20년 세계 손해보험 실질성장률은 3.0%로 전망됨

- 중국은 글로벌 손해보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1.1%p), 이는 북미 성장률 전망치(0.8%p)보다 높음

- 중국에 비해 선진국 성장률이 둔화되었기는 하나, 앞으로도 글로벌 손해보험 성장률에 절반 정도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⁴⁾

〈그림 3〉 2020년 지역별 손해보험 성장률 기여도 전망

(단위: %p)



자료: Swiss Re(2019. 7. 4), Sigma No.3, p. 18

3) 중국 자동차보험은 신차 매출 하락과 가격정책 개편 등으로 낮은 성장을 하였고(2018년 3%), 향후에도 관세 자유화 및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삭감 등이 자동차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현재 Sigma에 따르면 전 세계 손해보험에서 선진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임

■ 2018년 우리나라 수입보험료는 세계 보험산업의 1.9%를 차지하여 세계 7위를 기록하였으며, 2029년 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비중은 3.5%로 세계 8위, 손해보험 비중은 3.4%로 세계 7위를 기록함
- 수입(원수)보험료를 총인구로 나눈 값인 보험밀도는 3,465달러로 세계 17위,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인 보험침투도는 11.2%로 세계 5위를 기록함

■ 향후 세계 보험산업은 아시아 중심의 재편이 지속될 것이며, 2029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으로 세계 보험산업 성장축의 아시아 이동이 계속되어 2029년까지 중국은 전 세계의 20%,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7년 평균 보험료 성장률 분석에서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보였음⁵⁾
 - 현재 세계 2위인 중국 보험산업 비중은 2018년 11%에서 2029년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5) 또한 선진국 시장의 손해보험 성장률은 경제성장률 성장궤적에 근접한 반면, 생명보험 성장률은 시차가 나타남

2. 미국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동향⁶⁾

■ 미국 보험회사의 자산은 채권 및 주식, 부동산, 기타장기투자자산(사모펀드, 헤지펀드, 담보 및 무담보 대출채권과 같은 비전통적 장기투자자산) 등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자산 중 채권은 48.4%를 차지하고 있고, 주식은 31.5%이며 부동산은 7.1%, 기타장기투자자산은 4.0%를 차지함⁷⁾

■ 최근 미국 보험산업의 기타장기투자자산에서 헤지펀드 투자가 축소되면서 비중 또한 축소되고 있음

○ 기타장기투자자산 중 헤지펀드 투자액은 2015년 251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6년 179억 달러로 대폭 감소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4> 참고)

- 생명보험은 2015년 142억 달러에서 2018년 58억 달러로, 손해보험은 2015년 102억 달러에서 2018년 81억 달러로, 건강보험은 2015년 7억 달러에서 2018년 6억 달러로 감소함

○ 기타장기투자자산 중 헤지펀드 비중도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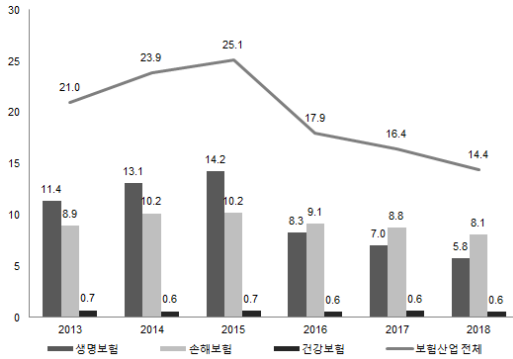
- 생명보험은 2015년 8.8%, 손해보험은 10.5%, 건강보험은 10.0%에서 2018년 각각 5.8%p, 3.1%p, 4.6%p 감소하여 3.0%, 7.4%, 5.4%를 기록함

6) 미국 보험산업 이슈는 AM Best(2019. 7. 10), "Life Insurers Continue to Reduce Hedge Fund Investments"를 참고함

7) ACLI(2018. 10. 26), "Life Insurers Fact Book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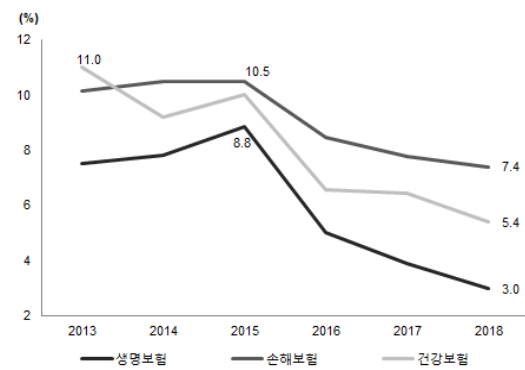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보험산업 기타장기투자자산 중
헤지펀드 투자금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그림 5〉 미국 보험산업 기타장기투자자산 중
헤지펀드 투자비중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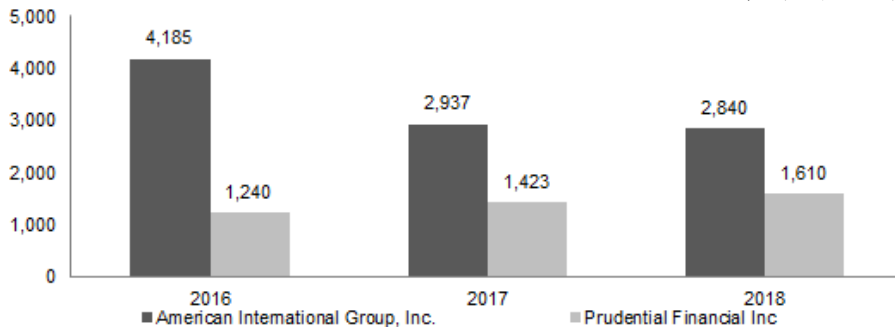
■ 보험산업 전반적으로 헤지펀드 투자 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회사별로는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 금액 증감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보험산업 중 헤지펀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AIG(2018년 기준 기타장기투자자산의 19.7%)의 헤지펀드 투자 금액은 2016년 약 42억 달러에서 2018년 약 28억 달러로 꾸준히 감소함

○ 반면 보험산업 중 헤지펀드 투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프루덴셜(2018년 기준 기타장기 투자자산의 11.2%)의 헤지펀드 투자금액은 2016년 약 12억 달러에서 2018년 약 16억 달러로 증가함

〈그림 6〉 미국 보험산업 헤지펀드 투자비중 상위 2개사 3개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투자전략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투자전략인 Long/Short Equity 전략과 다양한 전략에 자산을 배분하는 다중전략(Multi-Strategy)이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함

○ 헤지펀드 투자전략은 대표적으로 Long/Short Equity 전략, 다중전략,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투자 전략,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투자하는 부실 채권투자전략 등이 있음

○ 보험회사의 Long/Short Equity 전략과 다중전략은 보험산업의 최근 5개년 헤지펀드 투자 전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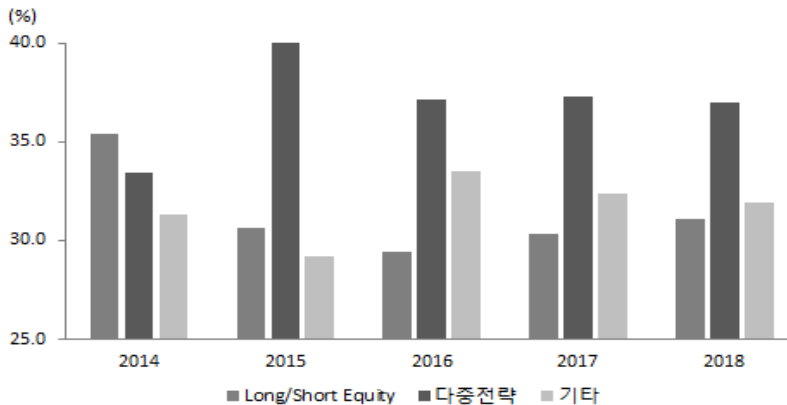
〈표 1〉 미국 보험산업 전체 주요 헤지펀드 투자전략 비중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Long/Short Equity	35.4	30.6	29.4	30.3	31.1
다중전략	33.4	40.2	37.1	37.3	37.0
섹터투자	6.6	6.9	10.2	10.7	10.7
부실채권투자전략	11.2	9.3	9.5	8.7	8.7
기타	13.4	13.0	13.8	12.5	12.5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그림 7〉 미국 보험산업 헤지펀드 투자전략 비중 5개년 추이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 보험산업의 헤지펀드 투자전략 추이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산업과 건강보험산업의 경우 섹터투자가 세 번째로 비중이 큰 전략이며, Long/Short Equity 전략의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냄

- 생명보험산업의 Long/Short Equity 전략은 2014년 33%에서 2018년 21%로 감소하였고, 건강보험산업에서는 2014년 57%에서 2018년 30%로 감소함

○ 손해보험산업에서는 Long/Short Equity 전략의 비중이 가장 크고, 부실채권투자전략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산업에서는 부실채권투자전략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건강보험산업에서는 비중이 미미함

〈표 2〉 미국 보험산업 산업별 헤지펀드 투자전략 비중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글로벌 매크로	4	3	3	4	2	6	7	9	8	9	-	-	-	-	-
Long/Short Equity	33	29	23	21	21	37	33	34	36	38	57	40	51	53	30
합병차익거래	1	0	0	0	0	1	1	2	0	0	-	-	-	-	-
채권차익거래	4	4	5	6	4	0	1	1	1	2	-	4	-	-	-
Convertible Arbitrage	0	0	1	0	0	1	1	0	0	0	-	-	1	1	1
선물/옵션/외환	0	1	1	0	0	5	4	3	3	3	-	-	0	1	1
섹터투자	7	7	14	14	15	5	5	6	7	7	17	31	20	19	21
부실채권투자	14	11	12	9	8	9	7	8	8	10	1	-	1	0	0
신흥시장투자	3	3	2	2	2	3	3	3	3	2	-	1	-	-	-
다중전략	34	42	40	44	47	33	38	35	33	29	25	23	28	26	47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3.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실적

가. 생명보험 주요실적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연간 기초이익은 3조7,714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함
 - 대형 9개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이익은 2조4,439억 엔으로 생명보험산업의 72%의 비중을 차지함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35.3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4.4% 증가함
 - 대형 9개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5.5조 엔으로 생명보험산업의 49.5%의 비중을 차지함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총자산은 387.7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함
 - 대형 9개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209.8조 엔으로 생명보험산업의 66.9%의 비중을 차지함

〈표 3〉 일본 생명보험산업 기초이익, 수입보험료, 총자산(FY2018)

(단위: 억 엔(영업이익), 조 엔(총자산), %)

구분 ^{1),2)}	기초이익 ³⁾			수입보험료			총자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업생명보험회사	25,025	3.8	73.7	18.1	5.7	57.7	225.1	2.4	71.7
대형 생명보험회사	24,439	4.7	72.0	15.5	3.4	49.5	209.8	1.8	66.9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7,439	10.1	21.9	8.7	7.0	27.8	54.7	3.6	17.4
손해보험계열 생명보험회사	795	13.9	2.3	3.0	3.5	9.6	21.5	7.1	6.9
제조업계열 생명보험회사	683	71.5	2.0	1.5	7.6	4.9	12.5	7.5	4.0
소계	33,942	6.2	100.0	31.3	5.9	100.0	313.8	3.1	100.0
우정 간이생명보험	3,772	-2.3	(11.1)	4.0	-6.5	(12.7)	73.9	-3.8	(23.6)
총계	37,714	5.2		35.3	4.4		387.7	1.7	

주: 1) 전업생명보험회사는 15社(그 중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9社), 외자계 생명보험회사15社, 손해보험계열 생명보험회사는 4社, 제조업계열 생명보험회사 6社로 총 40社

2) 간이생명보험(간포보험)은 일본 우체국에서 창구 등을 통해 판매하는 간이 보험(かんいほけん)의 줄임말로, 일본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3) 보험회사의 기초이익은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을 더한 금액

자료: 닛세이키조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72.1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함

-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신규계약액은 21.5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9%증가함(FY2017 신규계약액은 전년도 대비 38.5% 감소)
- 외화보험과 개인정기보험의 판매증가가 신규계약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보유계약액은 982.9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0.9% 감소함

-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액은 543.8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함(FY2017 보유계약액은 전년도 대비 4.2% 감소)

〈표 4〉 일본 생명보험산업 신규계약액, 보유계약액(FY2018)

(단위: 조 엔, %)

구분 ^{1),2)}	신계약액			보유계약액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업생명보험회사	24.6	15.2	37.0	562.7	-3.4	62.7
대형 생명보험회사	21.5	15.9	32.3	543.8	-3.8	60.6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20.9	10.8	31.4	181.9	3.9	20.3
손해보험계열 생명보험회사	11.9	31.0	17.9	86.4	4.1	9.6
제조업계열 생명보험회사	9.1	22.7	13.7	66.8	5.9	7.4
소계	66.5	17.3	100.0	897.8	-0.6	100.0
우정 간이생명보험	5.6	1.8	8.4	85.1	-4.3	9.5
총계	72.1	15.9		982.9	-0.9	

주: 1) 전업생명보험회사는 15社(그 중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9社), 외국계 생명보험회사15社, 손해보험계열 생명보험회사는 4社, 제조업계열 생명보험회사 6社로 총 40社

2) 간이생명보험은 간포보험은 일본 우체국에서 창구 등을 통해 판매하는 간이 보험(かんいほけん)의 줄임말로, 일본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자료: 넷세이조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나. 이원별 손익현황(대형 생명보험회사)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의 기초이익은 2조 4,439억 엔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6.4% 증가함

○ 사차익·위험차익은 2016년부터 연평균 0.9% 감소한 반면 이차익은 7,192억 엔으로 연평균 33.5% 증가함

- 저금리 상황에서도 외국채 이자와 국내의 주식 배당 증가가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이차익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높은 이율로 계약한 보유계약의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줄어든 것으로 보임

〈표 5〉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 기초이익 현황

(단위: 억 엔, %)

구분	FY2016	FY2017	FY2018	CAGR
이차익(A)	4,035	6,160	7,192	33.5
사차익 및 위험차익(B)	17,557	17,182	17,247	-0.9
기초이익(A+B)	21,592	23,332	24,439	6.4

주: 1)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 9社の 기초이익임

2) 기초이익은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을 더한 금액임

자료: 닛세이키초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9개社 중 7개社)의 위험차익은 1조5,055억 엔으로 작년 대비 2.9% 증가함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위험차익이 기초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7%로 2016년도부터 연평균 0.9% 감소함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9개社 중 7개社)의 이차익은 6,629억 엔으로 작년대비 16.3% 증가함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이차익이 기초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로 2016년도부터 연평균 33.7% 증가함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9개社 중 7개社)의 사차익은 1,238억 엔으로 작년대비 17.5% 감소함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사차익이 기초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2016년도부터 연평균 13.2% 증가함

〈표 6〉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7社) 이원별 손익

(단위: 억 엔, %)

구분		FY2016	FY2017	FY2018	CAGR
기초이익	금액	20,001	21,838	22,928	7.1
	비중	100.0	100.0	100.0	-
위험차익	금액	15,329	14,634	15,055	-0.9
	비중	76.6	67.0	65.7	-7.4
이차익	금액	3,707	5,700	6,629	33.7
	비중	18.5	26.1	28.9	24.9
사차익	금액	966	1,500	1,238	13.2
	비중	4.8	6.9	5.4	5.7

주: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9社 이며, 그 중 공개한 7社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자료: 닛세이키초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평균예정이율은 하락한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이율은 상승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평균예정이율은 2016년 2.25%에서 2018년 2.13%로 하락함

- 생명보험회사가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1%대이며, 계약 중 낮은 예정이율을 가진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예정이율도 감소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이율은 2016년 2.5%에서 2018년 2.57%로 상승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이율과 평균예정이율과의 스프레드는 2016년 0.25%p에서 2018년 0.44%p로 확대됨

■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이율과 평균예정이율의 스프레드 확대는 이차익 증가로 나타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이차익은 2016년 4,035억 엔에서 2018년 7,192억 엔으로 증가함

-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이자역마진은 2013년부터 해소되었으며 2018년의 이차익은 2006년 이후 사상 최고치임

〈표 7〉 일본 대형 생명보험 이차익 내역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6	FY2017	FY2018
이자율 차이(C=B-A)	0.25	0.38	0.44
평균예정이율(A)	2.25	2.19	2.13
기초이율(B)	2.50	2.57	2.57
책임준비금(D)	159.2조 엔	161.7조 엔	163.8조 엔
이차익(C×D)	4,035억 엔	6,150억 엔	7,192억 엔

주: 1) 이차율차익=책임준비금×(기초이율-평균예정이율)

2) 기초이율은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성과로 볼 수 있음

자료: 닛세이키초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다. 지급여력 현황(대형 9개 생명보험회사)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16년 903.4%에서 2018년 966.9%로 2016년 대비 63.5%p 증가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은 2016년 34.5조 엔에서 2018년 38.4조 엔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5.5% 증가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총위험액은 2016년 7.6조 엔에서 2018년 7.9조 엔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2.3% 증가함

〈표 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단위: 조 엔, %)

구분	FY2016	FY2017	FY2018
지급여력(A)	34.5	37.1	38.4
자기자본	12.2	13.0	13.5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	13.3	14.1	14.2
토지 평가차액	0.7	1.0	1.2
부채성자본조달	2.9	3.4	3.7
계약반환금 초과액	5.4	5.6	5.8
총 위험(B)	7.6	8.0	7.9
지급여력비율(A/(B÷2)) ¹⁾	903.4%	922.0%	966.9%

주: 일본의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에 (총위험÷2)를 나눔

자료: 닛세이키초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4.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최근 동향

■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⁸⁾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2조 6,746억 위안을 기록함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국민소득 증가, 인구고령화 심화 및 생명보험 예정이율 인상의 영향으로 2014년부터 두 자릿수로 성장하기 시작함

- 중국의 1인당 GDP는 2008년에는 3,468달러에 불과했지만 2014년 7,630달러, 2017년 8,762달러로 상승함

-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00년 7.0%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10년 8.9%, 2017년 11.4%로 지속 상승함⁹⁾

- 중국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은 1999년부터 2.5%로 한정됐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면 폐지돼 3.0%~4.0% 수준으로 상승함¹⁰⁾

○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세계보험시장의 12.0%를 차지하면서, 일본(11.6%)을 제치고 미국(20.6%)에 이어 세계 2위권에 진입함

-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3,176억 달러로 6.1% 감소한 일본의 3,072억 달러를 넘어섰음¹¹⁾

- 미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 대비 1.9% 감소한 5,469억 달러를 기록함

○ 다만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6년(36.5%)에 비해 둔화된 모습임

- 2017년 중국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둔화는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매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¹²⁾

- 중국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매출 감소는 2016년 3월부터 발표된 일련의 생명보험회사

8) 중국의 생명보험 유형은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 의료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소득보장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 상해보험 및 연금보험이 있음

9)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10) 중국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 폐지는 2013년 8월 배당금이 없는 전통형 생명보험, 2015년 3월 유니버설 생명보험, 2016년 9월 유배당 생명보험의 순서대로 시작됨

11) Swiss Re(2018. 7), "World insurance in 2017: solid, but mature life markets weigh on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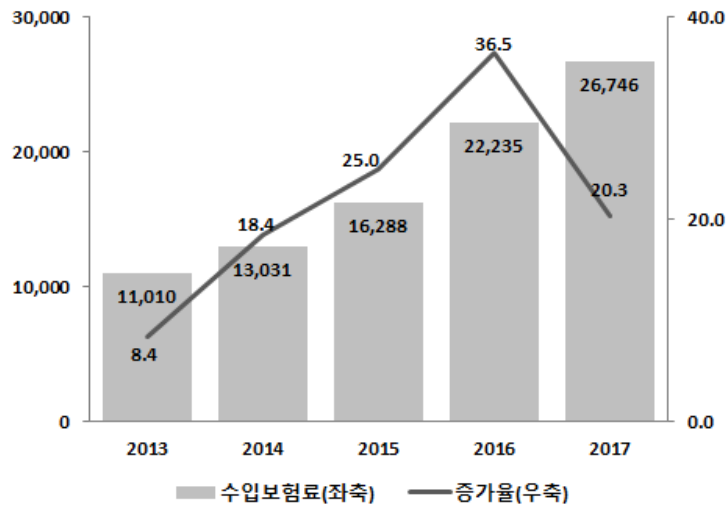
12) 중국 유니버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 22.0%, 2015년 95.0%, 2016년 55.0%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50.0%로 급감함. 2017년 1~11월의 유니버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전체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4.4%에서 18.0%로 급락함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때문임¹³⁾

* 2016년 3월 발표된 “중단기 생명보험 관리강화 조치”는 보험기간 5년 이하의 생명보험 판매를 제한했으며,¹⁴⁾ 2017년 5월 발표된 “생명보험 상품개발 관리강화 조치”는 유니버설 생명보험을 특약으로 설계한 생명보험의 판매를 금지함

〈그림 8〉 2013~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2017년 중국의 생명보험회사¹⁵⁾ 수는 85개를 기록함

○ 중국계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각각 57개사, 28개사가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92.6%, 7.4%임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한국계 생명보험회사는 BOC-Samsung Life(삼성생명 중국법인), Sinokorea Life(한화생명 중국법인)이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0.15%, 0.02%임

■ 2017년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인 중국생명, 평안생명, 안방생명,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은¹⁶⁾ 전체 생명보험회사에서 각각 1~5위를 차지함

13) 이소양(2017. 9), 「2017년 상반기 규제강화에 따른 중국 생명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KiRi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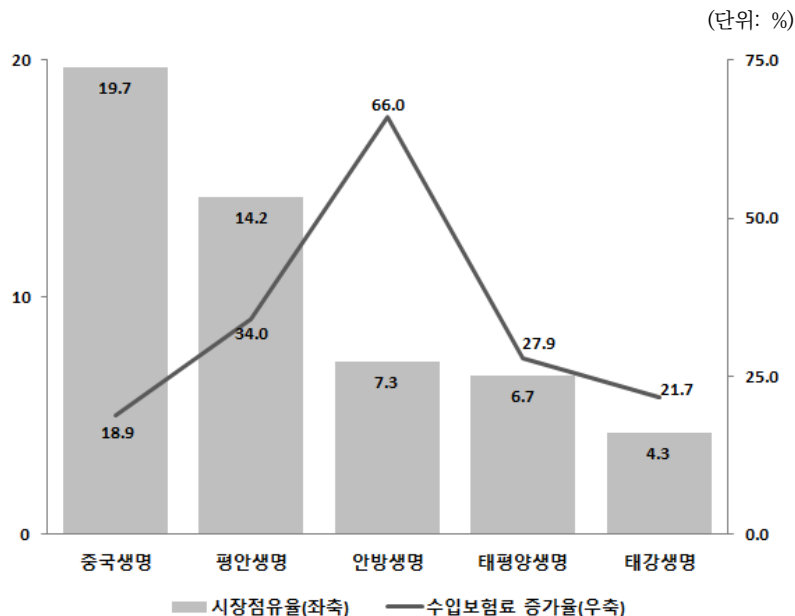
14) 중국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했던 대다수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보험기간 5년 이하의 생명보험으로 설계됨

15) 여기서 말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일반보험회사인 생명보험회사(71개) 외에도 전문보험회사인 건강보험전문보험회사(6개), 연금보험전문보험회사(7개), 온라인전문생명보험회사(1개) 및 생명보험상호회사(1개)를 포함함

16) 중국생명은 국영보험회사이며, 평안생명, 안방생명,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은 모두 민영보험회사임

- 중국생명(19.7%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18.9%로 생명보험시장의 평균 증가율(20.3%)에 못 미침
- 평안생명(14.2%), 안방생명(7.3%), 태평양생명(6.7%) 및 태강생명(4.3%)은 각각 2~5위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모두 생명보험시장 평균 증가율을 초과함
 - 2017년 평안생명, 안방생명,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34.0%, 66.0%, 27.9% 및 21.7%임

〈그림 9〉 2017년 상위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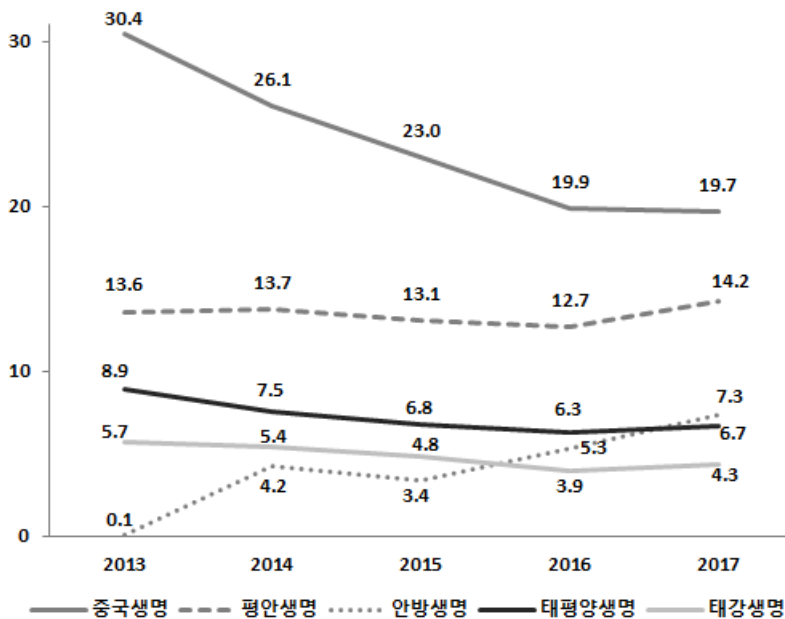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2013~2017년 5년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을 볼 때 평안생명(14.2%)과 안방생명(7.3%)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한 반면, 중국생명(19.7%), 태평양생명(6.7%) 및 태강생명(4.3%)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함
- 평안생명(14.2%)과 안방생명(7.3%)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13년 13.6%, 0.1%에서 2017년 14.2%, 7.3%로 상승함
 - 평안생명의 시장점유율은 2014~2016년 3년 연속 감소했지만 보험설계사 채널 강화 및 핀테크 사업 확대 전략¹⁷⁾으로 2017년에는 반등세로 돌아섬

17) 평안생명을 소유하는 평안보험그룹은 보험, 은행 및 증권을 포함한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2013년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평안테크를 설립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금융혁신 기술 개발에 착수함

- 2014~2017년 5년간 안방생명의 시장점유율은 공격적인 고금리 유니버설 생명보험 판매로 지속 상승함
- 중국생명의 시장점유율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자사의 상품구조 전환정책으로 2013년 30.4%에서 2017년 19.7%로 크게 하락함
 - 중국생명은 2014년까지 일시납 생명보험을 주력상품을 판매했으나 2014년부터 장기납 생명보험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태평양생명과 태강생명의 시장점유율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각각 2013년 8.9%, 5.7%에서 2017년 6.7%, 4.3%로 하락함

〈그림 10〉 2013~2017년 상위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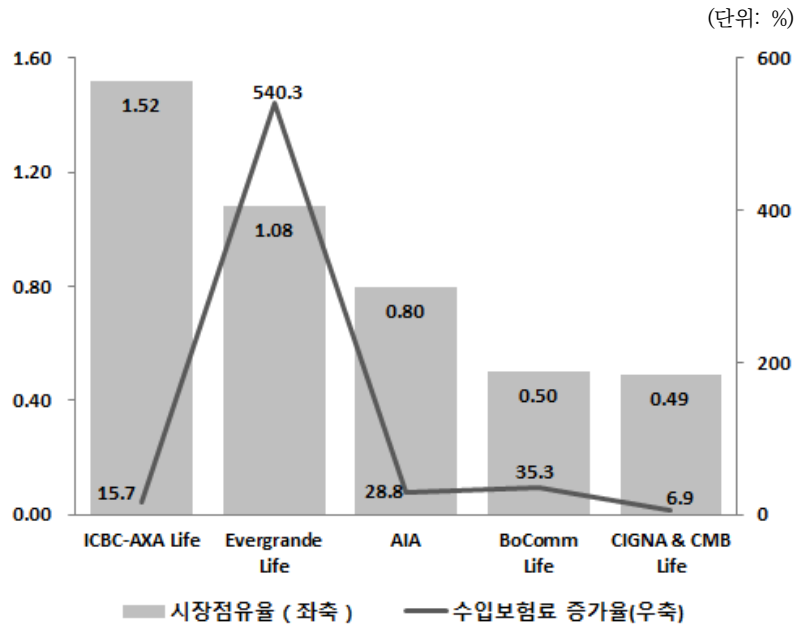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2017년 ICBC-AXA Life, Evergrande Life, AIA, BoComm Life 및 CIGNA & CMB Life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각각 1~5위를 차지함
- ICBC-AXA Life는 1.52%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15.7%로 전체 생명보험시장 평균 증가율(20.3%)보다 낮음

- 2017년 2위사인 Evergrande Life의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540.3%나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은 1.08%로 상승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3, 4, 5위를 차지한 AIA(0.80%), BoComm Life(0.50%) 및 CIGNA & CMB Life(0.49%)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1%대에 못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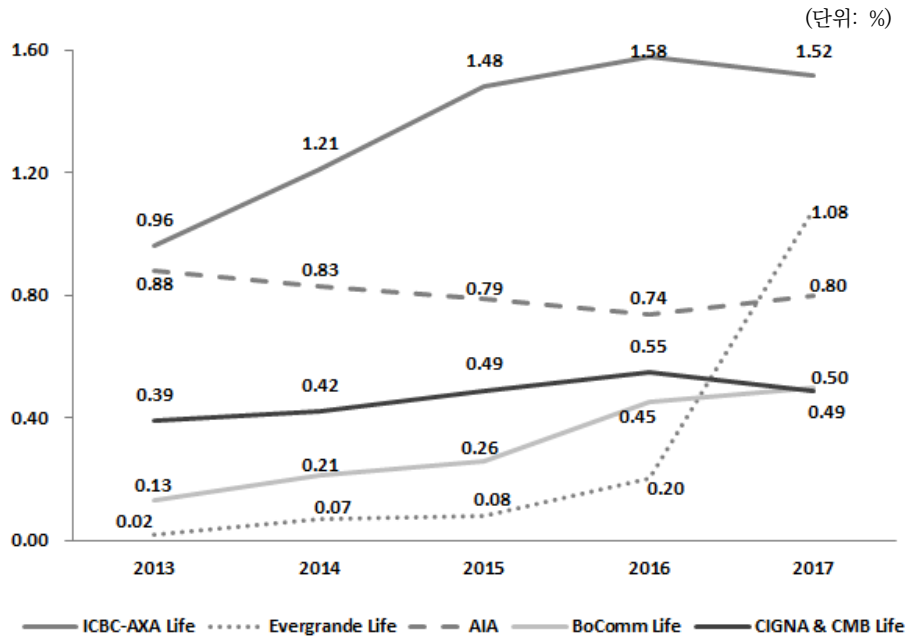
〈그림 11〉 2017년 상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 상황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2013~2017년 5년간 외국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을 볼 때 AIA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계 4개사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AIA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88%에서 2016년 0.74%까지 하락다가 2017년에는 0.80%로 다소 회복됨
- 반면 2017년 ICBC-AXA Life, Evergrande Life, BoComm Life 및 CIGNA & CMB Life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13년 0.96%, 0.02%, 0.13%, 0.39%에서 1.52%, 1.08%, 0.50%, 0.49%까지 상승함
 - 특히 2017년 Evergrande Life의 시장점유율은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약 5배 상승함

〈그림 12〉 2013~2017년 상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한편, 시장점유율 순위와 달리 2017년 순이익 기준 평안생명 및 AIA는 각각 중국계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1위를 차지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평안생명은 347억 위안으로 328억 위안을 기록한 중국 생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함

-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의 순이익은 각각 101억 위안, 93억 위안임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AIA는 20억 위안으로 11억 위안을 기록한 Evergrande Life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함

- ICBC-AXA Life, BoComm Life 및 CIGNA & CMB Life의 순이익은 각각 6억 위안, 3억 위안, 7억 위안임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

- 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중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운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호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역·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운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 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보험동향』 2019년 여름호 (통권 90호)

발행일	2019년 9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9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